

2019-CR-07

작은연구 좋은서울 19-01

Hi 상호문화도시 서울: 서대문구 유학생들과 함께 만드는 옹기종기 상생마을 프로젝트

박재윤 김진영 박송아



Hi 상호문화도시 서울:
서대문구 유학생들과 함께 만드는
옹기종기 상생마을 프로젝트



연구책임

박재윤 이화다문화연구소 연구원 [자하연구소]

연구진

김진영 이화다문화연구소 연구원 [상호문화스타일연구소]

박송아 이화다문화연구소 연구원 [그라썸연구소]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목차

01 서론	1
1_연구배경	1
2_선행연구 및 개념화	5
3_연구문제 및 가설검증	13
02 연구방법	16
1_설문 조사 방법	16
2_인터뷰 조사 방법	26
03 프로토타입 실행	45
1_1차 단짙플리마켓 & 상호문화대화	49
2_2차 단짙플리마켓 & 상호문화대화	56
04 연구결과 및 정책 제언	63
참고문헌	67
부록	70

표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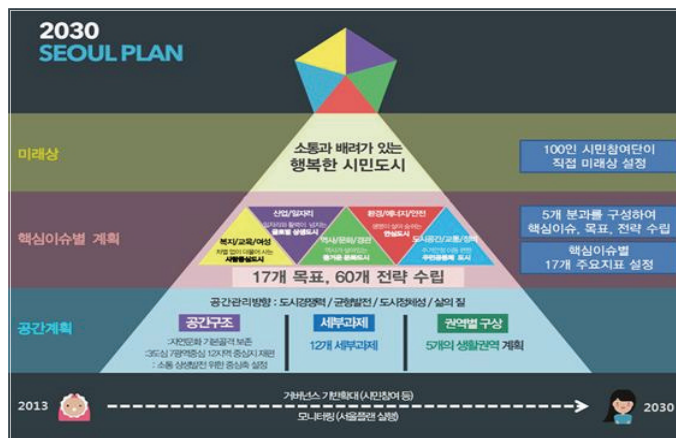
[표 1-1] 서대문구 유희공간 리스트	3
[표 1-2] 서울시 외국인 유학생 석박사과정 재학생 수	4
[표 1-3] 상호문화도시 우수 실천 사례 모음	7
[표 1-4] 연구 방향 프레임	12
[표 1-5] 가설검증의 단계	14
[표 1-6] 연구 수행 계획표	15
[표 2-7] 국적별 서대문구 유학생 현황	17
[표 2-8] 연구 참여자 정보	26
[표 2-9] 질문지 구성 및 질문 예시	27
[표 2-10] 연구 진행 절차	28
[표 2-11] 개별면담을 통해 도출된 주제	29
[표 3-12] 1차 & 2차 옹기종기 상생마을 프로토타입 실행 내용	45
[표 3-13] 옹기종기 상생마을 홍보자료	46
[표 3-14] 단짠플리마켓 진행 순서	52
[표 3-15] 1차 단짠플리마켓 & 상호문화대화 프로그램 순서	55
[표 3-16] 2차 프로토타입 실행 프로그램 내용	58
[표 3-17] 상호문화대화 카드 제작 내용	62

그림 목차

[그림 1-1] 글로벌 존	1
[그림 1-2] 2030 도시기본계획 미래상과 계획과제	2
[그림 1-3] 서대문구 외국인 변화추이	4
[그림 1-4] 상호문화도시 프로젝트	6
[그림 1-5] 틸부르크시의 '사교쇼파'의 예시와 옹기종기 상생마을 1회 상호문화대화 시간	8
[그림 1-6] 상호문화대화 핵심개념	9
[그림 1-7] 상호문화역량나무	10
[그림 1-8] Deardorff(2006)의 상호문화역량 형성 과정중심모델	11
[그림 1-9] 연구 수행 절차	14
[그림 2-10] 국적별 국내 유학생 현황	17
[그림 2-11] 국적별 서대문구 유학생 현황	17
[그림 2-12] 유학생들의 거주기간	19
[그림 2-13] 유학생들의 거주형태	19
[그림 2-14] 유학생들의 한국에서의 경험 및 상호문화적 대화를 통한 공동체 형성	30
[그림 3-15] 카드 뉴스	49
[그림 3-16] 세계지도 접수처	50
[그림 3-17] 대만 유학생이 가져온 나무 공예 물건들	50
[그림 3-18] 1차 프로토타입 배치	50
[그림 3-19] 2부 너를 알아가는 시간 <첫인상 게임>	53
[그림 3-20] 2부 너를 알아가는 시간 <공통점 찾기>	53
[그림 3-21] 2차 단짝플리마켓 & 상호문화대화 세계지도 접수처	56

[그림 3-22] 2차 프로토타입 실행 시 함께함이 시가 되는 오늘	57
[그림 3-23] 2차 프로토타입 배치 나를 알아가는 시간 & 상호문화대화 시간	57
[그림 3-24] 참여자들의 소감 나눔	60
[그림 3-25] HI 상호문화도시 서울! 옹기종기 상생마을 영상스케치	61

문구에 터를 잡은 유학생들은 그들만의 리그로 유리되어 생활하고, 지역주민들과는 별다른 소통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 그들은 주로 주변 외국인 친구들이나 불특정 다수로부터 작성된 부정확한 인터넷 글 등에서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습득하고 있었다. 현지인들에게서 얻어야 할 정보들을 “~라고 하더라” 형식의 ‘하더라 통신’으로 잘못된 정보를 얻어 낭패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었다는 외국인 친구들의 얘기를 들으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또 이들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오해와 실망을 경험하고 한국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갖게 되었다고도 했다. 이렇듯 지역주민으로 살면서 지역주민들과는 실제로 소통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유리벽을 세운 채 공존만 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 보고자 했다. 그 대표적인 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오랜 전통인 ‘장터’ 문화를 생각해 내었다. 단순한 물건을 사고파는 장이 아닌 서로의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단짝을 만들어 주고, 더불어 상호문화대화²⁾를 시도해 볼 수 있는 마당을 만들어 보고자 했다.



출처: 서울특별시 2030 서울플랜(안) 자료, p20

[그림 1-2] 2030 도시기본계획 미래상과 계획과제

1) 서울시 안에 지정되는 글로벌 존은 글로벌 비즈니스 존 4개소, 글로벌 빌리지 6개소, 글로벌 문화교류존 5개소로 총 15곳이다. 서울시에서는 이를 통해 외국인에게 비우호적인 서울의 비즈니스, 생활, 교육 환경 등을 개선해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고 서울을 세계적 허브도시로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

<http://english.seoul.go.kr/life-information/residence/housing/3-international-districts/#none>

2) 상호문화대화는 서로 다른 문화의 집단간 구성원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화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그들이 동의하지 않는 다른 의견들에 대해서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있음을 가정하고 있다. (2019, 유네스코) <https://en.unesco.org/interculturaldialogue/core-concepts>

첫째, 서대문구의 특성과 발전 방향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그 상위 개념인 서울의 도시기본계획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국토계획법에 근거한 도시기본계획으로 서울의 모든 계획 수립 시 기본 지침이 되는 법정 최상위 계획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시민도시”를 서울의 미래상으로 선정하고, 부문별 7대 계획과제를 선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서대문구는 서울시 최대 개방구이다. 유휴공간이 총 27개 시설, 67개 공간, 시: 27개 시설 33개 공간, 자치구: 418개 시설 총 685개 공간이 있다. 서울시와 서대문구는 유휴공간 이용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공간들을 어떠한 프로그램과 만남의 장으로 활용할 것인지가 중요한 지점이다. 이번 프로젝트의 경우 비어있는 유휴공간들을 활용할 가치 있는 상생의 접근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표 1-1] 서대문구 유휴공간 리스트

연번	시 설 명	서비스명	연번	시 설 명	서비스명	연번	시 설 명	서비스명
1	충현동 주민센터	2층 대회의실	24	홍제2동 주민센터	4층 문화교실	47	서대문구체육회관	대체육관
2	충현동 자치회관	지하공연연습실	25	홍제3동 주민센터	2층 멀티학습실	48	서대문구체육회관	소체육관
3	충현동 자치회관	3층 살림마루	26	홍제3동 주민센터	2층 문화사랑방	49	서대문구체육회관	무용실
4	충현동 자치회관	4층 컴퓨터실	27	홍제3동 주민센터	3층 다목적실	50	서대문문화회관	대극장
5	충현동 자치회관	5층 연양실	28	홍은1동 주민센터	지하강당	51	서대문문화회관	소극장
6	충현동 자치회관	주민자치위원회회의실	29	홍은1동 주민센터	3층 강당실	52	서대문문화회관	갤러리
7	천연동 주민센터	다목적실	30	홍은1동 주민센터	4층 다목적실	53	서대문구청	대강당
8	천연동 주민센터	문화취미교실	31	홍은1동 자치회관	지하 강당실	54	서대문구청	대회의실
9	북아현동 주민센터	3층 강의실(취미교양실)	32	홍은1동 자치회관	3층 다목적강당	55	서대문구청	기획상황실
10	북아현동 주민센터	3층 강의실(지역나눔방)	33	홍은1동 자치회관	1층 다목적실	56	서대문구청	제1회의실
11	북아현동 주민센터	3층 강의실(문화사랑방)	34	홍은2동 주민센터	강당	57	서대문구청	제2회의실
12	신촌동 자치회관	제1강의실	35	홍은2동 주민센터	취미교실	58	서대문구청	제1세미나실
13	신촌동 자치회관	제2강의실	36	홍은2동 주민센터	예술교실	59	서대문구청	제2세미나실
14	연희동 자치회관	지하 광나눔교실	37	홍은2동 주민센터	문화교실	60	서대문구청	제3세미나실
15	연희동 자치회관	2층 문화교실	38	남가좌1동 주민센터	2층 강의실	61	서대문구청	식당
16	연희동 자치회관	2층 여학실	39	남가좌2동 주민센터	3층 대회의실	62	서대문구청	4별관 대회의실
17	연희동 주민센터	3층 문화교실	40	남가좌2동 주민센터	지하1층 강의실	63	서대문구청	4별관 소회의실
18	홍제1동 주민센터	3층 다목적실	41	남가좌2동 주민센터	5층 강의실	64	서대문구보관소	보관교육실
19	홍제1동 자치회관	4층 강의실1	42	북가좌1동 주민센터	2층 문화교실1	65	신촌경로당	3층 다목적실
20	홍제1동 자치회관	4층 강의실2	43	북가좌2동 주민센터	2층 취미문화교실	66	창원동 경로당	지하 다목적실
21	홍제2동 주민센터	지층 다목적실	44	북가좌2동 주민센터	2층 다목적실	67	초원동 경로당	3층 다목적실
22	홍제2동 주민센터	2층 주민사랑방	45	서대문구의회	1층 소회의실			
23	홍제2동 주민센터	3층 다목적실	46	서대문구체육회관	한마음체육관			

출처: <https://tongblog.sdm.go.kr/17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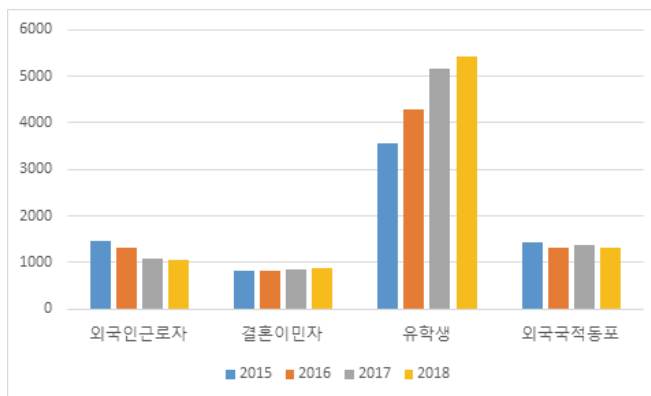
셋째, 서대문구에는 감리교신학대학교, 경기대학교, 명지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명지전문대학교,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이렇게 9개의 대학이 소재하고 있기에 다른 지역에 비해 유학생이 많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도 보인다. 이 9개 대학의 총 재적 학생 수는 99,575명이고, 이 중 유학생 수는 7,898명(학사 2,859명, 석박사 1,762명, 연수과정 3,284명)이다. 다시 말해 전체 서대문구 소재 대학교 중 약 7.9%가 외국에서 이주한 학생이라는 것이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18) 서울시 전체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61,085명이므로, 서대문구에는 서

을 전체 유학생의 12%가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표 1-2] 서울시 외국인 유학생 석박사과정 재학생 수

	외국인 유학생 석박사과정(명)
서대문구	1,764
동대문구	1,532
동작구	1,383
관악구	1,210
광진구	1,020

출처: 행정자치부 외국인 주민현황(2018)



[그림 1-3] 서대문구 외국인 변화추이

다른 자치구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대학별 유학생 수는 상이하나, 서대문구의 주요 대학들은 국제학부를 가지고 있으며 연세대학교는 64%가, 이화여자대학교는 52%를 국제 학부 유학생이 차지할 정도로 국내 학생 수보다 유학생이 많은 단과대학도 있다. 이렇게 대학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많은 학생들이 외국인 유학생과 일상적으로 만나며 학업에 매진하는 가운데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신촌동의 유학생 수가 2016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의 구별 석박사 과정 유학생 수를 보면, 서대문구가 가장 많아 1,764명으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글로벌도시 서울 안에서도 특히 서대문구가 해외의 우수한 인재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들을 지역자산으로 하여 지역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 파급효과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결고리 안에서 서울의 도시기본계획의 전체 큰 목표 안에서 서대문구의 특징과 유학생들의 증가 그리고 서대문구 지역사회 간의 상생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보고자 하였다. 특히나 서대문구에는 우수 대학 내의 유학생 집단과 같은 고학력 이주자들이 있고, 이는 서대문구 지역사회에 인적 자원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다. 앞서 언급한 유학생들의 고충과 정주민들 사이의 욕구 조사 분석 및 소통의 장 마련을 통해 두 집단 모두 서대문구에 대한 귀속함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조사, 연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선한 의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실천이 필요하다(Good will is no enough, Action is needed)’라는 유네스코 「교육자료집」(Education Pack)³⁾의 내용에서 영감을 받은 상호문화교육의 실천적 결과물이다. 지금 당면한 이러한 서대문구 상황과 배경하에 〈Hi 상호문화도시 서울! 옹기종기 상생마을 프로젝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대문구의 유학생들과 함께할 수 있는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초석을 위한 실험과 도전을 창조적으로 진행해보고자 한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_선행연구 및 개념화

1) 유럽의 상호문화도시 프로젝트 [IC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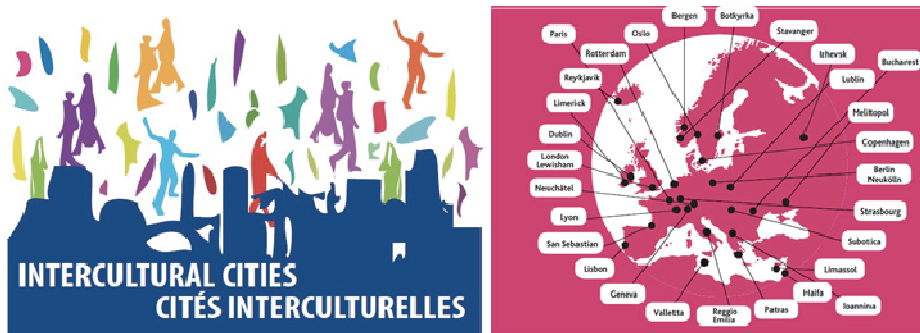
현재 서대문구의 상황을 위해서 가장 적합한 모델을 유럽의 ‘상호문화도시(ICC)’에서 찾아보고자 하였다. 상호문화도시에 대한 유럽평의회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상호문화도시에는 국적, 출신국, 언어, 종교, 신념이 다른 사람들이 있다. 정치 지도자와 대부분의 시민은 다양성을 자원으로 간주한다. 이 도시는 차별적 대우에 적극적으로 맞서며, 거버넌스와 기관이 다양한 구성원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도시에는 다양성과 문화적 갈등을 다루는 전략과 도구가 있으며, 공공 공간에서 다양한 집단들 간의 더 큰 혼합과 상호 작용을 장려한다’.⁴⁾ 상호문화도시의 개념은 2004년 영국의 연구기관인 코메디아(Comedia)⁵⁾에서 조셉 라운트리 파운데이션(Joseph Rowntree Foundation)의

3) Good will is not enough, action is needed. (유네스코, Education PACK) <https://en.unesco.org/interculturaldialogue/>

4) Council of Europe, The inter- cultural city Index: questionnaire, p.3.

5) Comedia, <http://www.comedia.org.uk/>, 검색일자: 2019년 12월 26일. 코메디아(Comedia)는 찰스 랜드리(Charles Landry)가 1978년에 설립한 영국의 싱크탱크(Think Tank) 기관으로서 기관명은 설립자의 관심사를 반영하여 ‘의사소통(Communication)’과 ‘미디어(Media)’를 조합한 것이다. 도시 연구에 관심이 있으며, 도시 내 사회의 문제가 경제적, 문화적, 환경적으로 복잡하여 연결되어 이전의 단편적인 솔루션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직시하여,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통한 도시 만들기에 기여하고 있다. 찰스 랜드리(Charles Landry)와 코메디아(Comedia)팀은 1990년대 초반에 “창조도시(Creative City)” 개념을 발전시켰다.

지원을 받아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의 수석 고문인 필 우드(Phil Wood)와 찰스 랜드리(Charles Landry)가 2년간 수행한 연구보고서 ‘상호문화도시: 최고의 다양성 만들기(The Intercultural City: Making the Most Diversity)’를 통해 정립되었다. 유럽은 유학생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고, 다양한 문화들이 어우러져서 살기 위한 터전을 오랫동안의 고민을 통해 ‘상호문화도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각 도시별 특색을 살려서 그 고민을 해결해보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림 1-4] 상호문화도시 프로젝트

유럽연합 ‘상호문화도시프로젝트’⁶⁾는 2019년 현재 총 13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상호문화도시프로젝트’는 2008년 유럽평의회와 유럽연합이 도시 내 문화 다양성을 관리·증진하기 위해 내놓은 도시설계·운영 프로그램이다. 주요 내용들은 상호행동(접촉 또는 만남)의 장려와 이를 위한 공적 공간의 활성화에 대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헌을 살펴보면, 이주민 환영: 문화, 예술적 행사(홍종열, 2012), 사회통합(김정흔, 박치완, 2018), 가족공동체와의 협력(홍종열, 2012), 교육, 문화개방성, 상호문화성: 교실 내에서의 상호문화성, 예술 및 언어 교육(홍종열, 2012), 공공성과 지역사회 서비스/공공장소에서 열린 정도: ‘세계의 집’, ‘원형 테이블 하우스’, ‘사교 소파’(틸부르크 시, 홍종열, 2012) 비즈니스 환경의 열린 정도: 이주민을 위한 센터, 중고 가게, 이웃 돌봄(오정은, 2016)의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상호문화도시 우수 실천(Good Practice)의 주제들을 살펴보면, 환영과 사회통합 66개, 교육 59개, 문화 개방성 및 상호문화성 개발 58개, 공공 및 지역사회 서비

6) 상호문화도시 프로젝트(The Intercultural cities programme-ICC) supports cities in reviewing their policies through an intercultural lens and developing comprehensive intercultural strategies to help them manage diversity positively and realise the diversity advantage. <https://www.coe.int/en/web/interculturalcities>

스 54개, 문화 및 레저 37개, 비즈니스 및 직업 32개, 통신 25개, 지도력과 정치 헌신 20개, 난민 18개, 반차별과 평등 16개, 건강·사회복지 및 가족 지원 15개, 도구 및 기술 13개, 종교와 신앙 11개, 치안, 안전 및 정의 10개, 집시 4개, 참여 1개가 있다. 이러한 실천 사례는 유럽평의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호문화도시전략 10가지에 속하며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다양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개발 2) '상호문화 렌즈(Intercultural Lens)'를 통한 도시 기능 평가 3) 중재 및 분쟁 해결 4) 언어 5) 미디어 전략 6) 국제 관계 7) 근거 기반 접근법 8) 상호문화 인식 교육 9) 새로운 이주자들에 대한 환영 10) 상호문화 거버넌스이다. '상호문화도시'의 대표적 우수 실천 사례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3] 상호문화도시 우수 실천 사례 모음

스페인 파를라 [Parla]	115개 국가의 민족이 거주, 인구의 25%가 외국 출신(유럽 연합,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등), 2016년에 인근의 대학들과 상호문화성의 신장을 위해 학생들과 학문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 상호문화적인 관계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를 통하여 5개의 분야(안보, 공공장소, 이웃과의 공존, 예배 장소, 교육)에 관한 공공정책의 수립을 제안하여 학교와 지역 당국과의 협력은 학생들과 지역에 기회와 함께 성장하는 상황을 제공
이탈리아 레지오 에밀리아 [Reggio Emilia]	인구 16만 명 중 비국적자와 외국 출신이 총인구의 16%를 차지, 알바니아인(전체 인구의 2.06%), 모로코인(1.81%), 중국인(1.58%), 레지오 에밀리아(Reggio Emilia)는 2016년 종교 간 상호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모든 종교의 평등한 자위를 이루고, 복지 서비스에서 그들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 이탈리아에서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종교적 장소는 카톨릭 교회와 카톨릭 소유의 공간이라, 지난 20년 동안 등장한 다른 종교 공동체는 고립된 지역의 임대 창고와 같은 부적합한 건물에 정착해야 했으나, 모든 종교적 신앙의 동등한 권리를 위해 오랫동안 합법적이고 교육적인 캠페인을 시작, 다양한 종교 공동체를 조사하고 종교의 기능의 적절한 정착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종교 공동체가 수행하는 복지 및 사회적 기능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지역의 복지 서비스 전반에서 그 규모와 중요성을 이해하려고 했음. 이 프로젝트는 매핑 단계를 지나 교육 및 지원 단계를 시행하고 있음.
영국 브리스톨 [Bristol]	설람 살람 라디오 방송국은 처음으로 이슬람교도와 유대인의 대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시행, 이 방송은 이슬람교도와 유대인 젊은이 사이의 상호작용과 상호이해를 신장하기 위한 가교를 목적으로 설립, 공동체의 관계증진을 위한 혁신적인 접근법과 신앙 공동체가 공동체 간 화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좋은 예를 제시.
스페인 아마도라 [Amadora] 바르셀로나 [Barcelona] 빌바오 [Bilbao]	이민자에 대한 오해, 편견, 소문 및 고정관념과 싸우고 문화 다양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소문에 속으면 안 된다(Do not feed the rumour)"라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이민자들은 범죄와 급진주의와 관련이 있다", "이민자들은 국가가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산다" 또는 "외국 어린이는 학교에 문제를 가져올 뿐이다" 등 이민자들에 관한 소문을 다룬다. 훈련된 전문 요원의 자원과 네트워크를 만들어 바이러스성 의사소통 전략이 수립되었으며, 이민자에 대한 포르투갈 정주민의 긍정적인 태도와 같은 좋은 결과를 이끌어 냈다.

덴마크 코펜하겐의 노레브로인 [IndreNørrebro]	선주민의 전학으로 외국인 학생 비율이 80% 도달. 이 지역의 학부모들은 네트워크를 출범하여 학교와 지역센터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유치원을 방문하는 등 선전활동을 함. 그 후 2년 사이에 선주민들 이 자신의 자녀들을 지역학교에 보내기 시작하면서 네트워크의 성과를 얻었으나, 이들의 투쟁은 현재에도 진행 중.
--	---

위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특히, 학교 주변인 서대문구 이대 후문 근처에는 유학생들이 지역의 특성상 많이 거주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유학생들과 한국인들 사이의 직접적인 만남과 소통의 장이 펼쳐지는 곳은 부족한 상황이다. 유럽의 상호문화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교쇼파’의 경우 이번 용기종기 상생마을에 적용해보기 좋은 지점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유학생들의 경우 이들이 한국을 떠날 때 버리고 가는 물건들의 장터가 현재 온라인으로 존재는 하지만 단순히 물건 나눔을 넘어서 마음도 나누고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연구를 하였다.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생각은 글로벌하게 행동은 지역 상생적으로(Think Globally and Act Locally)’라는 가치를 가지고 이번 연구를 상생의 도시문화를 만드는 것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보고자 하였다.



[그림 1-5] 틸부르크시의 ‘사교쇼파’의 예시와 용기종기 상생마을 1회 상호문화대화 시간

2) 다문화 사회를 위한 ‘상호문화대화’

이와 함께 유네스코에서 다문화 사회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중요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상호문화대화’⁷⁾가 있다. 이 만남의 방식과 철학을 바탕으로 이번 용기종기 상생마을 단 짝플리마켓에서 ‘상호문화대화’를 실천적으로 시도해보려고 한다. 다름이 갈등이 아닌 호기심과 존중의 영역이 될 수 있도록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서대문구의 특성에 맞도록 기획해 보았다.

⁷⁾ https://www.youtube.com/watch?v=vr10BU_a2C0



출처: 유네스코 상호문화대화 <https://en.unesco.org/interculturaldialogue/core-concepts>

[그림 1-6] 상호문화대화 핵심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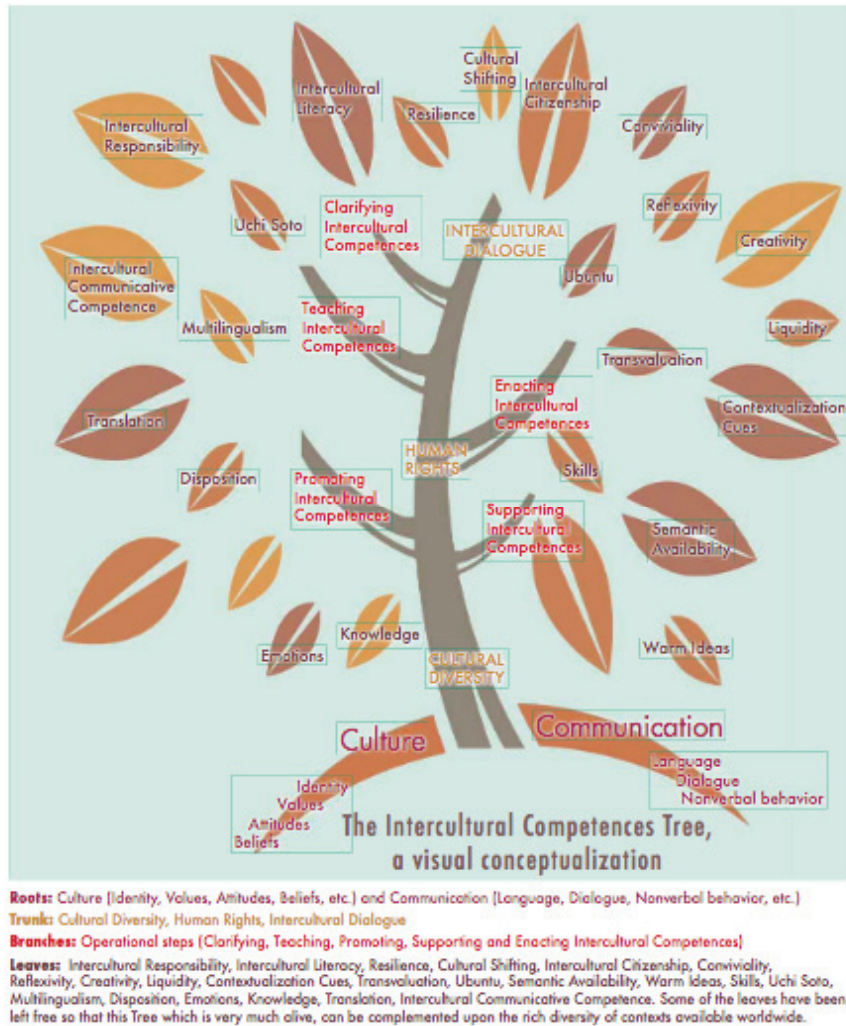
유네스코에서는 ‘상호문화대화’를 위한 핵심 개념으로 27가지의 주요 개념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 중 몇가지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상호문화적 문식성(intercultural literacy), 성찰(reflexivity), 창조성(creativity), 문화다양성(cultural diversity), 보편성(universality), 의사소통역량(communicative competence) 등이 상호문화대화의 주요 개념을 구성하고 있다. 주요 개념과 함께 상호문화대화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화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상호문화역량’이 필요하다. Deardorff(2020)에 의하면 ‘상호문화대화’에 참여하기 위한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전제와 역량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는 모두 인권을 통해 상호연결되어 있다.

둘째, 우리 모두는 태어나면서부터 존엄성과 가치를 지닌다.

이를 바탕으로 존중과 열린 마음의 상태로 참여해야 한다. 이 두가지 대전제와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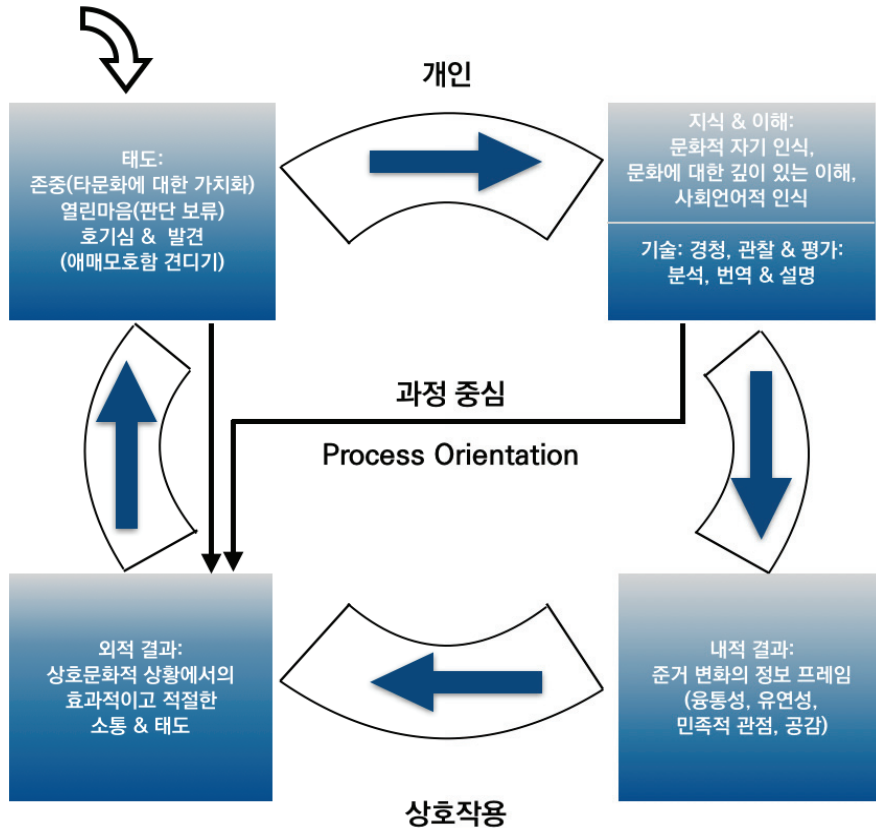
- 1) 모든 사람은 나눌만한 개인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 2) 우리 모두는 서로를 통해 배울 수 있다.
- 3) 이해를 위해 경청하는 것은 변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림 1-7] 상호문화역량나무⁸⁾

유네스코에서는 ‘상호문화역량나무’로 상호문화역량의 개념들을 시각화한 것을 통해서 ‘상호문화대화’가 하나의 기둥 안에 위치할 만큼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 간의 만

⁸⁾ Roots: Culture (Identity, Values, Attitudes, Beliefs, etc.) and Communication (Language, Dialogue, Nonverbal behavior, etc.) Trunk: Cultural Diversity, Human Rights, Intercultural Dialogue Branches: Operational steps (Clarifying, Teaching, Promoting, Supporting and Enacting Intercultural Competences) Leaves: Intercultural Responsibility, Intercultural Literacy, Resilience, Cultural Shifting, Intercultural Citizenship, Conviviality, Reflexivity, Creativity, Liquidity, Contextualization Cues, Transvaluation, Ubuntu, Semantic Availability, Warm Ideas, Skills, Uchi Soto, Multilingualism, Disposition, Emotions, Knowledge, Translation,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Some of the leaves have been left free so that this Tree which is very much alive, can be complemented upon the rich diversity of contexts available worldwide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219768>)

남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Deardorff (2006)에 의하면 상호문화역량은 문화와 의사소통의 큰 뿌리를 바탕으로 문화다양성, 인권, 상호문화대화가 큰 기둥을 이루며 형성된다고 '상호문화역량나무'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호문화역량'의 주요 요소들을 대화의 과정 진행을 통해서 잘 보여주는 Deardorff(2006)의 상호문화 역량 형성과정 중심모델은 다음과 같다.



[그림 1-8] Deardorff(2006)의 상호문화역량 형성 과정중심모델

본 연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서대문구 유학생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상호문화대화'가 이주민과 정주민 간의 관계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그 토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물건 교환의 플라마켓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만남을 통한 정서적 지원을 통해 관계까지 살피는 '상호문화대화'의 기획도 중요하게 다루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다음은 본 연구 방향에 대한 진행 방향과 절차의 도표이다. 서대문구 현황과 특성 분석을 통해서 지역적 특색과 구성원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고, 양적 질적 설문 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유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상호문화도시프로젝트의 우수 실천 사례를 참고하여, 연구의 방향성을 구체화한다. 다문화·상호문화 협동과정을 박사수료한 연구진 2명과 1명의 박사과정생이 함께 옹기종기 상생마을 단작플리마켓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총 2회의 프로토타입을 실행한다. 서대문구의 현황에 맞는 정책을 도출하여 바람직한 상호문화적 접근 방식에 대해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실천적인 실행방안을 제도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소통과 상생의 프로그램을 제안해보고자 하였다.

[표 1-4] 연구 방향 프레임

1) 서대문구 현황과 특성 분석	• 서대문구 지역적 특색과 구성원 파악
2) 서대문구 유학생의 수요조사	•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유학생들의 인식조사
3) 선행연구	• 상호문화도시 프로젝트와 상호문화대화 선행연구조사
4) 프로그램 개발	• 플리마켓과 상호문화대화 융합 프로그램 개발
5) 프로토타입 실행	• 1차 & 2차 프로토타입 실행
6) 정책도출	• 상호문화대화의 유효성 확인 • 타지역에서 사회 구성원으로 바라보는 상호문화접근
7) 실행방안	• 제도적 지원 • 만남과 관계 형성에 주목하는 프로그램 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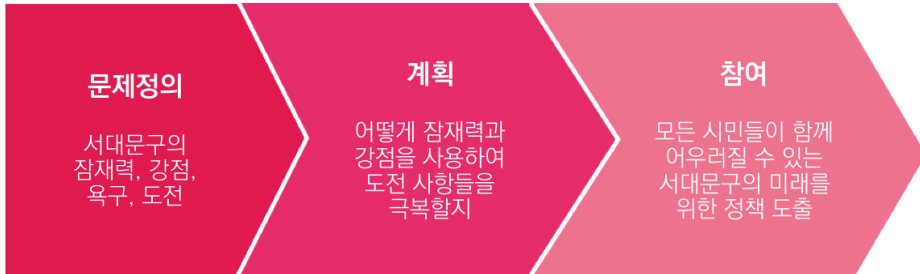
3_연구문제 및 가설검증

서대문구는 역사와 문화의 역동성과 청년문화, 새로운 문화의 유입과 변화라는 요소들을 지니고 있는 장소이다. 이러한 서대문구의 고유성을 반영한 정책은 ‘사람’을 위한 정책을 우선시하는 서대문구의 가치를 잘 표현하며, 특히 ‘다양성의 공존’이 서대문구의 핵심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중요할 것이다. 또한, 본 프로젝트의 제목처럼 2030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인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시민도시’라는 서울 전체의 목표와도 부합하고 있으니, 연구의 방향성에 있어서 바르다고 할 수 있다.

도시의 다양성은 비단 한국과 서대문구만의 현상은 아니다. 이미 오래전에 다문화 사회로 들어선 해외 선진국에서는 최근 초다양성 또는 슈퍼 다양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도시의 다양성의 정도가 지칭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도시는 외국 태생의 이주자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비중으로 거주하며, 다양한 국가와 지역, 문화권이 한 도시에 모이는 경우를 말한다. 장한엽(2019)은 다문화화 되어가는 한국의 도시들이 도시 내 문화 다양성을 관리, 증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호문화도시가 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⁹⁾ 또한, 그는 최근 유럽에서 다문화주의와 정책의 대안으로 부각되는 ‘상호문화주의’는 “다문화주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공동운명체’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라며 “상호문화주의에 바탕을 둔 게 상호문화도시”라고 말했다. 랜드리(2010)는 도시공간에서 나타나는 다양성에 대해 온갖 종류의 다양성이 도시 안에서 표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도시 정책가와 도시민들이 이에 대해 눈을 감고 이 현상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혹은 이러한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싶은 경우에도 그 방향성을 잘못 잡거나, 갈피를 못잡는 경우도 많이 있다. 도시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민들을 위한 행사나, 축제를 기획할 경우에도 ‘유학생, 탈북민, 다문화가정, 그리고 일반시민’이라는 문구를 통해 여전히 타자화가 드러나는 지점이나, 축제의 형태에 있어서도 외국인이 태권도를 체험하거나 한복을 입는 정도의 ‘문화 체험적인 내용’에 머물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상대를 배려하는 상호문화적인 관점 보다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것에 머무는 동화주의적 정책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사례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점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서대문구의 특수한 유학생 중심의 자치구에서는 앞서 이러한 도시의 다양성을 고민한 유럽의 ‘상호문화도시프로젝트(ICC)’를 참

9) 제천시민이 직접 ‘상호문화도시’ 만들자 <http://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3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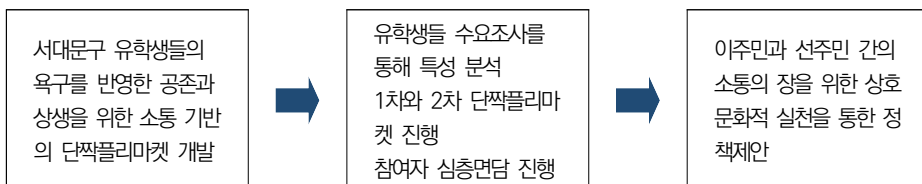
고하고, 다양성이 경쟁력이 된다는 선진국의 발상을 가지고 상호문화적 가치인 ‘다름이
 풍요가 되는 사회’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림 1-9] 연구 수행 절차

이에 본 연구는 “서대문구 유학생과 소통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이주민과 정주민 사이의 소통프로그램은 무엇이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문제정의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서대문구의 상황을 바탕으로 서대문구 유학생들의 욕구를 반영한 공존과 상생을 위한 소통 기반의 단짝플리마켓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계획을 위해 먼저 설문지를 통해 유학생들의 출신지와 연령, 거주기간 등의 자료는 물론 한국에 대한 생각과 그들의 필요를 조사하고, 그들의 특성을 분석할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서대문구 유학생들의 잠재력과 강점 그리고 욕구와 도전 사항들을 파악하였다. 바탕으로 1차, 2차 단짝플리마켓을 진행하면서 개별적인 인터뷰를 통해서 그들의 생각과 필요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단순한 물건의 교환이나 매매가 아닌 물건을 나누는 삶의 필요와 정서적인 위로와 친구를 사귀는 욕구 모두를 해소할 수 있는 이주민과 선주민 간의 소통의 장을 위한 상호문화적 접근으로서의 실행을 검토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그 주요 내용에는 지역사회 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참여 활성화 및 지원정책 개선을 위한 서대문구 및 기타 유관기관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서대문구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중장기계획 수립을 통한 지역사회 내 소통 활성화 및 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5] 가설검증의 단계



연구 수행을 위한 상세 계획표는 아래와 같다.

[표 1-6] 연구 수행 계획표

담당분과	수행 내용	월별 수행 사항					
		1차			2차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선정	기획주제 최종 선정						
세팅	연구팀 최종 착수인원 선정						
	선행 연구 사례 재검토 진행						
	SNS 계정 생성 및 설문링크 제작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진행						
	설문조사분석						
1차 홍보	홍보물 디자인 제작 진행						
	온라인 홍보 진행						
	장소 답사 및 진행 관련 미팅						
기획 및 섭외	단짝지기 섭외(중국, 태국, 인도)						
	프로그램 기획 및 섭외						
	영상 및 사진 스케치 기획 및 섭외						
	홍보물 제작(엽서 및 포스터)						
	플리마켓 물건 수집						
1차 진행	1차 프로토타입 진행						
	1차 인터뷰 진행						
	면대면 질문지법 설문조사 및 분석						
2차 홍보	홍보물 배포						
	2차 링크 제작 및 배포						
	단짝지기 섭외(중국, 태국)						
	기획 및 섭외						
	플리마켓 물건 2차 수집						
2차 진행	2차 프로토타입 진행						
	2차 인터뷰진행						
	면대면 질문지법 설문조사 및 분석						
정리 및 분석	1, 2차 인터뷰 정리 및 분석						
완료	정책 제안 정리 및 최종보고서 완료						
보고일정			착수 보고		중간 보고		최종 보고

02.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설문 조사와 인터뷰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설문 조사 방법은 모바일과 면대면 설문지 조사 방법을 활용하여 표면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반면 인터뷰 방식은 일대일 면접법으로 심층적 접근을 시도하여 본 연구의 양적, 질적 연구의 균형을 이루고자 하였다.

1_설문 조사 방법

1) 설문지 작성 및 설문 조사

설문지의 내용은 [부록1]과 같고, 언어는 4개국(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언어로 번역하여 설문을 받는 데 어려움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설문지의 내용은 기본 인적 사항과 한국에서의 긍정적/부정적 경험, 그리고 한국에 바라는 점과 플리마켓 활용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서대문구의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들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은 학교(주로 이대와 연대) 안과 근처 카페에서 그들이 편안한 공간에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배려하였다. 처음에는 인스타그램이나 모바일을 통해 설문을 작성하도록 했는데 생각보다 어려움이 많았다. 온라인 설문이 유학생들의 환경에 적합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방법을 바꾸어 온라인 방식이 아닌 오프라인 방식의 면대면 설문지법으로 방향을 선회했지만, 이 또한 쉽지 않았다. 먼저 많은 유학생들이 유학 생활에 대해 묻는 것에 적잖이 놀랐고, 설문에 응하는 것을 꺼려했다. 한국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바빠서 외국인 학생들에게 관심이 적거나 거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원들의 접근이 다소 부담스러운 것으로 보였다. 그동안 한국 학생들이 보여주지 못한 관심 때문인지 본 연구진의 관심에 싫지도 좋지도 않은 듯한 묘한 분위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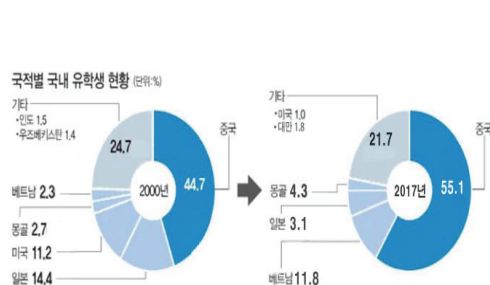
연출했다. 일단 서대문구의 유학생 30명을 중심으로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로부터 설문지를 받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설문지를 받고 보니 일부 백인 학생들의 국적이 편중되었고, 아시아의 경우도 중국인 유학생이 다수로 연구원들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유학생의 국적별 상황을 보다 세밀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아 총 30명의 서대문구 유학생들의 설문지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설문 조사 내용 분석에서 제외된 학생들의 설문지는 보고서와 함께 참고자료로 첨부할 예정이다.

2) 설문 조사 내용 및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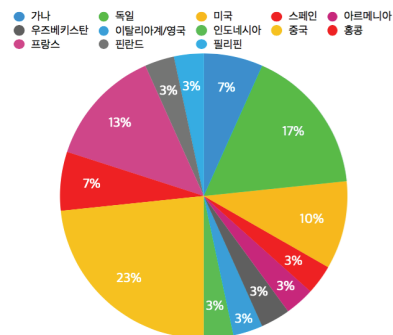
국적별 서대문구 유학생 현황은 독일과 프랑스, 미국 등의 백인 학생들이 많았지만, 단연 중국인 학생들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30명이라는 적은 모집단을 중심으로 하는 분석이라 서대문구 유학생 전체를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서대문구의 대표적인 종합대학 2곳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만큼 그 의미를 가벼이 넘길 수는 없다고 본다.

[표 2-기] 국적별 서대문구 유학생 현황

국적	가나	독일	미국	스위스	스페인	아르메니아	우즈베키스탄	이탈리아계 / 영국	인도네시아	중국	홍콩	프랑스	핀란드	필리핀
인원	1	5	3	1	1	1	1	1	1	7	2	4	1	1



[그림 2-10] 국적별 국내 유학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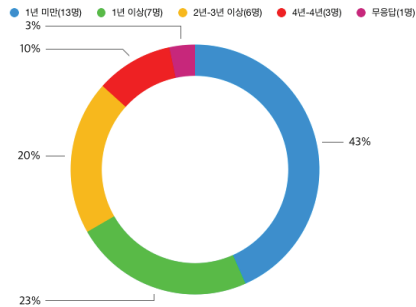


[그림 2-11] 국적별 서대문구 유학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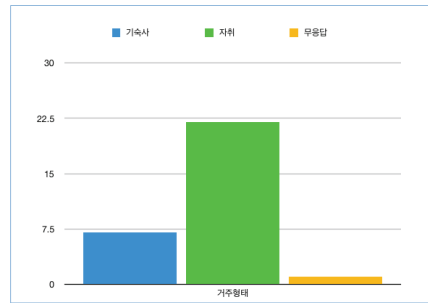
위의 국적별 국내 유학생 현황과 비교해 보면 서대문구 유학생의 국적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분포는 유의미한 것이며, 한국 내 어느 지역에서나 동일한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 한편, 위의 국적별 국내 유학생 현황과 달리 두드러지는 독일과 프랑스, 홍콩 유학생들의 분포는 서대문구 유학생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서대문구 신촌 일대와 이대 부근은 다른 지역에 비해 주거비와 식비 등 물가가 다소 높은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의 다른 지역의 유학생들과 비교해 서대문구 유학생들의 학비와 주거비, 생활비 등이 1.5배에서 2배, 많게는 3배까지도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서대문구 유학생들의 유입과 정착은 유학생들의 각국의 경제적 측면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독일과 프랑스, 홍콩 유학생들의 유입은 국가적 GDP와도 일견 일치하는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GDP가 높은 국가의 유학생들의 유입은 서대문구만의 현저하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 유학생들의 경우에도 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경제력을 소유한 부모가 있다고 예측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자녀가 한 명뿐인 중국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꼭 경제적으로 윤택하지는 않더라도 1명의 자녀에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것 역시 또 하나의 요인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서대문구 유학생들의 연령을 살펴보면, 10대가 2명, 20대가 24명, 30대가 4명으로 20대의 연령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20대에 집중된 유학생들은 학령기라고도 볼 수 있지만, 국내외적으로 확산된 ‘한류’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드라마와 영화는 물론 K-pop의 유행은 가장 적극적이고 민감한 20대들에게 한국과 한국 문화 그리고 한국어에 대한 동경을 만들기에 충분하다. 설문지에는 문항이 없지만, 한국을 알게 된 계기가 대부분 K-pop과 드라마, 영화의 수출로 접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한국인들의 해외 유학이 급증했던 것은 당시 대량으로 쏟아지는 미국 영화들과 미국 드라마의 영향이 지대했다고 보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30대 유학생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미 결혼을 한 상태로 아이와 가족들을 본국에 두고 떨어져 한국 유학을 선택했다는 것이 다소 놀라웠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직접적인 이유를 들을 수는 없어 조금 아쉬웠지만, 이들이 공부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 각자의 성공한 위치를 확보하게 된다면 아마도 30대들의 유학의 물결도 이어질 것으로 본다.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 음악 등에 관한 관심이 한국 유학의 시작이었지만, 궁극적으로 유학을 온 학생들에게는 학업이 역시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 조성 역시 정책 수립에 있

어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12] 유학생들의 거주기간



[그림 2-13] 유학생들의 거주형태

한국 거주기간에 대한 설문 응답을 보면, 1년 미만의 응답자가 가장 많다. 이것은 아마도 유학생들이 설문지에 응답한 시기가 2학기 개강 직후라는 점이 요인으로 분석된다. 서대문구 유학생들의 평균적인 거주기간은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을 포함하면 26명으로 상당 기간을 한국에 거주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기간에 이들의 **거주형태**를 살펴보면, 주로 원룸에서 자취 생활을 하면서 우리 주변의 1인 가구를 형성하고 있다. 신촌과 이대 일대의 원룸 비용은 평균적으로 50~60만 원, 많게는 70만 원 이상의 월세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동대문구나 성동구의 월세 수준은 평균 35~45만 원으로 비교적 저렴하다고 할 수 있다. 서대문구의 주거 비용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기숙사보다 자취 생활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보아 이들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또 이들이 기숙사가 아닌 원룸을 선택하는 데는 2~3인이 사용하는 기숙사 비용이 원룸 비용과 별 차이가 없는 것도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보통 한 학기(3개월) 기숙사 비용은 방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 100만 원에서 130만 원이다. 한 달에 33만 원에서 43만 원을 지불하고 방학에는 짐을 뺐다가 다시 들어가야 하는 기숙사보다는 그 비용에 조금 더 얹어서 원룸에서 개인의 사생활도 보장받고 안정을 찾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유학생들은 원룸 생활에 필요한 가전이나 집기류, 생필품 등 일상용품의 필요를 느끼게 되지만, 거주기간에 반해 비용 지불이 과하다고 생각되면 선뜻 지출하기를 머뭇거린다고 한다. 집안에 필요한 도구들이 부족하다 보니 그들은 자연스럽게 외식을 하게 되고, 생활비 지출이 증가하여 주거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감행하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이사 비용도 줄이기 위해 아깝지만 사용하던 물건들을

살던 집에 방치하거나 그냥 밖에 버리고 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고 몇 명의 유학생들은 말한다. 이렇듯 경제적 여유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유학생들이더라도 지속적인 고정비 지출의 증가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좀 더 값싼 주거비와 물가가 저렴한 지역으로 잦은 이사를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해 쉽게 한국인들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된다.

또한, 거둬드는 이사로 새롭고 낯선 곳에 적응해야 하는 스트레스와 긴장된 생활의 연속은 유학생들이 예민해 보이는 일면을 자연스럽게 형성하는 것 같다. 이렇게 그들은 선주민들과 어쩔 수 없이 분리되어 생활하게 되고 타지에서의 생활고와 외로움의 이중고를 견디지 못하고 학업을 포기하는 상황도 간혹 목격하게 된다. 서대문구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초기 유학생들에 대한 빠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국으로 향하던 유학생들의 발걸음이 어디로 옮겨갈지 모를 일이다. 유학생들이 학교와 가까운 주거지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모색되어야 하겠지만, 가장 먼저 정서적 안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낯선 곳일지라도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이웃과 친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생활의 불편함이나 어려움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정서적 안정은 대화와 감정적 교류를 통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서대문구 유학생들은 이와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긍정적 경험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었다. 유학생들에게 가장 **긍정적인 경험**으로 **첫째, 한국인들의 친절함과 배려심을 꼽았다**. 다수의 유학생들이 “한국인들은 매우 친절하고 잘 도와주려고 노력한다”고 응답했다. 언어를 배우는 학습의 현장, 식당에서 메뉴를 골라 주문할 때, 목적지의 장소를 찾아갈 때 교통수단 등에 대한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택시 운전사들은 친절하지 않다고 답변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둘째로 한국의 긍정적 경험은 편리한 대중교통과 배달음식의 천국이라는 것이다. 값싼 교통비와 잘 정비된 도로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배달음식이 가능하다는 것을 한국이 갖는 장점 중에 장점이라고 말했다. 이 장점에 대해서는 한국인들도 모두 격하게 공감할 것이다. 한국의 IT 기술과 배달의 혁명이 함께 일궈 낸 한국만의 독보적인 문화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저렴한 대중교통 요금은 한국을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본다.

셋째로는 한국의 안전한 치안 상태와 청결함을 꼽았다. 여성들이 밤늦게 다녀도 위험하지 않고 도둑이나 강도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칭찬했다. 이것은 서대문구가 “여성들

의 안심 귀갓길 돕기”라는 캠페인과 함께 두 명의 자원봉사자들을 골목 입구에 배치해 두고 있는 것과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또 청결함에 대한 인상은 수많은 환경미화원분의 노고로 서울시 전체가 깨끗한 것도 있지만, 신촌과 이대 부근의 원룸들이 대부분 청소 용역 업체를 고용하여 매주 청소를 전담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본다. 철저한 분리수거와 지속적인 관리로 인한 주변 환경의 청결함이 그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던 것이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이 지역의 주거비 상승에 일조하는 바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사는 1인으로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이 남는다.

넷째로 한국인들은 영어로 의사소통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모습이 좋다고 응답했다. 이는 한국인들의 높은 영어 학습 열의와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설문 대상자들 중 백인의 비율이 높고, 모두 영어 화자가 대부분이며 대학가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거주하는 유학생들이라는 점, 지역주민들이 또한 젊은 학생들이 많다는 점을 먼저 인지한다면 더욱 이해가 잘 될 것이다. 서대문지역의 대학생들은 영어로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기회를 살리고자 영어로 대화를 더 많이 시도했을 것이다. 그것을 백인 영어 화자 유학생들은 자신들에 대한 호의와 배려로 여겼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다음에 이어질 한국에서의 부정적 경험에서는 이와는 상반되는 영어 안내판이나 영어 가이드북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응답이 나오기도 한다.

한국인들 중에서 서대문구 특별히 신촌과 이대 부근의 유학생 응답자들은 지역 주민들의 경제생활에 여러모로 도움을 주는 존재들로 인식되기 때문에 환대받았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 주변 한국 학생들 역시 비슷한 환경에서 사는 유학생들을 동료로 인식하고 그들을 통해 다른 언어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이점을 은연중에 생각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서대문구 유학생들의 한국에서의 긍정적 경험의 답변은 중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서대문구 유학생들이 겪은 **한국에서의 부정적 경험 중 첫째는 인종차별(백인 선호)과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이었다.** 위의 한국에서의 긍정적 경험에서 언급한 한국인들의 친절함과 배려심은 어디로 간 것일까? 이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 볼 때, 한국인들은 피부색과 언어(영어 선호)에 따라 차등 대우를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유색 피부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 편견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유색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동들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을 극명하게 알 수 있다. 한국인들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유색인 차별을 경험하고도 정작 본인들은 한국에 돌아와 대상만 바꾸어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에게 받은 것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은 아닌

지, 잠시 멈추어 서서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백인들은 한국인들에게 호의를 받고 기분 좋아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지만, 그 외 다른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은 한국에서 불쾌감을 간직한 채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가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고착화한다면 큰일이 아닐 수 없다.

둘째로 언어적 장벽(한국어 안내판, 한국어 강요)의 어려움을 한국에서의 부정적 경험으로 꼽았다. 한국인들은 한국어를 잘하는 외국인에게 더 잘 대해 주고, 그렇지 못한 외국인에게는 홀대한다는 응답자도 있었다. 물론 한국말을 배워서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외국인을 보면 신기하고 어찌 기특하지 않겠는가? 이미 상술한 바와 같이 영어 화자들이 한국인들이 영어로 소통하려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본 것처럼, 한국인들 역시 한국어로 소통하려는 외국인들에게 더 호감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백인 영어 화자들의 자신들에 대한 호의는 좋고, 한국인들이 한국어를 말하도록 하는 것은 억지스럽다고 느끼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다. 본 연구자의 역측일 수도 있지만, 한국인들이 미국이나 유럽으로 유학 가서 한국어로 논문을 썼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 반대로 외국 유학생들은 한국에 유학 와서 영어로 논문을 쓰고 학위를 받아 가는 것을 볼 때마다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꼈던 경험이 있다. 한국인들의 백인과 영어에 대한 무한 동경이 빚어낸 결과 때문에 백인 영어 화자들은 자신들에 대한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다. 사실 한국인들은 유학생들에게 많은 배려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유학생들의 체감 온도는 한국인들의 생각과는 사뭇 달랐던 것 같다. 한국의 외국 유학생에 대한 언어적 지원이 부족했다면 더 노력해야 하겠지만, 일방적인 것이 아닌 더불어 외국 유학생들 역시 한국어 습득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셋째로 유학생들이 느낀 한국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은 은행과 병원, 관공서 등에서의 어려움이었다. 실제로 출입국 사무소와 병원에서 본 연구자가 목격한 것을 토대로 말한다면, 한국인 공무원들이 외국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은 고압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유학생들의 이러한 응답이 전혀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충분히 공감이 되었다. 또 동남아 유학생과 함께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그 학생을 대하는 간호사와 의사의 태도가 불편했다. 한국인과 동반했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았다는 그 친구의 말에 미안한 마음과 화난 마음이 교차했다.

넷째 유학생들이 말하는 한국에서의 부정적 경험은 ‘빨리 빨리의 한국 문화’였다. 한국인들은 참을성이 별로 없고, 그 속도를 따라가기가 힘들며, 말하는 속도도 빨라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어려웠으며, 중간에 말을 끊기도 하여 어울리기가 어렵다고 토로하

기도 했다. 4년 정도 거주한 한 유학생은 “한국은 강한 계층(계급)과 그에 눌러버리는 무력감이 문제라는 것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자신보다 낮은 지위의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타협안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도 않는다”고 한국 사회의 단면을 지적하여 연구자들을 당혹스럽게 했다. 한국 사회의 너무도 내밀한 치부를 들켜 버린 것 같지만, 그것을 발견한 그 유학생이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모르고 지나가도 될 것을 알아버린 것이 못내 씁쓸했다. 그렇지만 그러한 계층적 상하 구조의 부조리는 개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외부인의 날카로운 시선에서의 지적을 외면하지 말고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국 사회가 한 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본다.

유학생들에게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들과 **더불어 잘 살아가는 한국을 위해 바라는 점과 이유**를 물었다. 유학생의 대다수는 한국의 인종주의(백인 선호)와 **차별 인식**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응답했다. 두 번째로는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는데, 이것은 너무 영어 화자들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다. 영어 안내판과 각종 영어 가이드북의 제작을 요청한 것으로 표면적으로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 외 언어에 대한 존중하는 태도는 전혀 볼 수 없어서 아쉬웠다. 셋째로 **외국인의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한국의 청년들도 취업하기가 참 어려운 이 시점에서 유학생들의 이러한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것 역시 우리의 현실이 직면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유학생의 본국과 연결하여 무역사무소를 개설하고 간단하게는 한국의 건설 기술과 IT 기술력을 수출하고, 그 나라의 수출품을 들여오는 사업을 구상해 보는 등 다각도에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넷째로는 **성 소수자와 장애인 등 다른 정체성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를 희망했다. 이것은 근래 한국 사회의 화두로 떠오른 ‘성 소수자’에 관한 이슈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앞으로 더 많은 유학생이 유입될 때, 이 문제들은 비단 한국인들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유학생들의 진심 어린 한국에 대한 조언들은 고맙고 감사한 일침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한국에 온 유학생들과 한국인들 사이의 관계를 잘 맺고 있다고 한국인들은 생각했지만, 사실은 일부 착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한국인들은 스쳐 지나가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관심 어린 따뜻한 눈길을 보내주지는 못했던 것 같다.

서대문구 유학생들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한 공간 속에서 한국인들과 공유하는 삶을 영위해 가는 실존적 존재들인 것이다. 그러므로 서대문구 유학생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주민들과의 유대감 형성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마당, 즉 장(場)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서대문구 유학생들을 포용하고 지역주민들과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는 더불어 살아

가는 옹기종기 상생마을 프로젝트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단작플리마켓과 앞으로의 활용을 위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설문에 응답한 유학생들 중 플리마켓에서 사고팔고 싶은 물품으로 옷과 가전제품을 1위로 꼽았다. 앞서 기술한 내용에서 본 것처럼 서대문구 유학생들의 생활비 지출 절약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플리마켓에서 사고팔고 싶은 물품은 기념품과 생활용품이었다. 일반적으로 본국으로 돌아갈 때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한국적인 물건을 선물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물건들을 판매하는 전문매장보다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플리마켓을 통해 구입을 희망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또 플리마켓에서는 보다 한국적이고 실제적인 생활용품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유학생들의 입장에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자 하는 것 같다. 세 번째로 각 나라의 음식과 악세사리를 사고팔고 싶다고 응답했다. 이것은 멀리 이국땅에서 맛보는 자신 또는 다른 나라의 음식들을 통해 향수도 달래고 색다른 경험도 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한편, 플리마켓에 대해 “필요없다, 관심없다, 선호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유학생도 있었다. 이들은 모두 백인으로 3명 중 2명은 미국인 여학생이었고, 1명은 이탈리아계 영국인 남학생이었다. 이렇게 답변한 유학생들은 아마도 항상 한국인들의 관심 속에서 호의를 받았고, 한국 사회에서 비교적 얻고 싶은 것을 손쉽게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았다. 하지만 그들 역시 플리마켓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 표현하기도 했다. 이는 유학생들의 플리마켓에 대한 양가적 감정을 엿볼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소 결

지금까지의 설문 조사 내용 분석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서대문구 유학생들의 국적 분포가 타 지역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다. 국적별 서대문구 유학생들의 현황은 전체적으로는 국적별 국내 유학생 현황과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특이한 점은 다른 지역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미국, 독일, 프랑스와 같은 소위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들에서 오는 백인 유학생들이 밀집되어 있다는 점이다. 물론 대다수는 중국과 그 외 아시아 국가들의 다양한 분포도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서대문구 유학생들의 거주기간은 평균적으로 1년에서 3년 정도로 대부분 자취 생활을 하는 ‘원룸족’이다. 동대문구나 성동구 지역의 유학생들이 국적별로 모여 사는 것과는 달리 서대문구 유학생들은 1인 가구를 선호한다. 타 지역보다 비싼 주거비와 높은

물가로 일반 학생들의 생활비보다 많게는 3배 이상 소요되는데도 말이다. 이러한 요인 때문에 본국의 가족들로부터 어느 정도 경제적 후원이 절실하다는 점 역시 서대문구 유학생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서대문구에는 5개의 종합대학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젊은 도시이며, 소비가 주로 일어나는 지역적 특징 또한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소비는 매우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로 편의점과 식당, 인근 카페를 이용하는 정도이다. 이들은 최소한의 식비와 생활용품 및 가정 집기류에 대한 소비를 줄이고자 노력한다. 비싼 주거비와 물가로 이사와 이주가 잦아 서대문지역의 한국 학생들이나 지역 주민들과 유대 관계를 형성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적 정서나 한국인 친구와 이웃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한국을 떠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며 외국인들과 함께 공간 분할하여 살아가야 하는 한국인들과 두 번 오기 힘든 한국 유학생 시절의 좋은 추억을 위한 상생적 삶을 모색해야 하는 유학생들 모두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서대문구 유학생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이해하는 시간과 공간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서대문구 유학생들의 생활비 절감은 물론 정서적 교감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한 열린 장이 바로 플리마켓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일반적인 플리마켓이 아닌 단짝을 맺어 주어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도록 연결해주고, 각자의 경험들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는 상호문화대화를 시도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화는 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다”. 또한 “대화는 기적을 만든다”. 대화를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개선하고 기적을 만들어가는 상호문화대화의 포문을 단짝플리마켓과 함께 활짝 열어가 보도록 하자. “서대문구 유학생들과 함께 만드는 옹기종기 상생마을 프로젝트”는 현재 진행형이다.

2_인터뷰 조사 방법

본 연구에서는 태국, 필리핀, 중국 국적의 유학생 4명, 독일, 프랑스 유학 경험자 출신 2명, 선주민 11명을 대상으로 개별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을 진행하였다. 자료를 수집한 후 질적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2019년 8월부터 11월까지 총 4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1) 인터뷰 질문지 작성 및 인터뷰

연구 참여자 선정은 목적표집법(purposeful sampling)을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옹기종기 상생마을 단짝플리마켓에 참여한 다양한 출신국의 유학생, (2) 5년 이상 유학 경험이 있는 선주민, (3) 유학생과 상호문화적 대화를 원하는 선주민

본 연구 참여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표 2-8]에 제시하였다.

[표 2-8] 연구 참여자 정보

구분	참여자	연령	성별	유형	출신/유학국
A	김무0	40대	남	선주민	한국
B	김명0	20대	남	선주민	한국
C	분텡00	20대	여	유학생	태국
D	오0은	20대	여	유학생	필리핀
E	오0늘	20대	여	유학경험선주민	중국
F	임0중	30대	남	유학생	대만
G	최준0	30대	남	선주민	한국
H	남은0	30대	남	선주민	한국
I	이동0	30대	남	선주민	한국
J	조혜0	70대	여	선주민	한국
K	정성0	20대	남	선주민	한국
L	최진0	20대	여	선주민	한국
M	주리0	20대	여	선주민	한국
N	이영0	20대	여	선주민	한국
O	지은0	20대	여	선주민	한국
P	박재0	40대	여	유학경험선주민	프랑스

본 연구를 위한 질문지 개발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상호문화도시, 상호문화대화, 유학생 정책과 관련된 국내 문헌을 검토한 후 본 연구의 목적을 고려하여 연구진들과의 협의를 통해 문항을 개발하였다. 질문지에는 상호문화대화를 위한 플리마켓의 필요성, 프로그램의 구성 및 유의미 여부, 행사 참여 이후 유학생 및 이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여부 등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었다. 질문지 구성 문항은 [표 2-9]와 같다.

[표 2-9] 질문지 구성 및 질문 예시

질문의 구성	질문예시
한국에서의 어려움	한국에서 경험한 어려움이 있었는가? (유학생 해당 질문)
플리마켓 참여목적	유기종기 상생마을 단짝플리마켓에 참여한 목적은 무엇인가?
플리마켓 프로그램 구성	유기종기 상생마을 단짝플리마켓의 프로그램 구성은 어떠했는가?
프로그램 유의미성	유기종기 상생마을 단짝플리마켓의 프로그램 중 가장 의미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플리마켓 참여목적 달성	유기종기 상생마을 단짝플리마켓에 참여한 목적을 달성했는가?
플리마켓의 유용성	유학생과 선주민의 상호문화대화를 위해 플리마켓이 유용하다고 생각하는가?
인식개선으로 인한 변화	행사에 참여한 경험이 앞으로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는가?

행사가 진행된 2019년 8월 22일, 10월 26일 양일간 개별 면담이 진행되었다. 면담은 연구 참여자가 행사 이후 개별 면담을 실시하여 진행하였다.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진행 과정에 대해 구두로 설명한 후 동의를 받았다. 모든 면담 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되었으며, 동영상 촬영을 활용하여 녹화 및 녹음하였다.

녹음된 자료 파일들은 면담 이후 모두 전사하였다. 전사는 보조 연구자 1명이 진행하였고, 교차점검을 통해 녹음 내용과 전사본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였다. 전사는 Ms word를 이용하였고 분량은 글자크기 10, 줄 간격 1.0, 간격 표준, 장평 100으로 작성했을 때 A4용지로 총 34장이었다.

완성된 전사본은 지속적 비교법(constant comparative method)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3명의 연구자가 전사본을 읽고 개방코딩을 실시하였다. 각자 개방코딩한 전사본을

가지고 상의하여 부호를 만들었고 엑셀파일에 정리하여 1차 부호집을 완성하였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코드를 추가하거나 분리하는 등 범주화하였으며 최종적으로 6차 부호집이 완성되었다. 각 부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범주화하여 최종적으로 5개의 주제와 9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 면담 대상자에게 전사본을 확인하도록 하여 본인이 말하고 의미한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전사 되었는지 확인하여 전사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둘째, 또한 하나의 전사본에 대해 세 명의 연구자가 공동으로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대상자와의 일대일 개별면담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참여자의 동의를 구해 면담현장을 녹음하고 이후 작성된 전사본에 대한 공동연구자 교차검토 과정에 활용함으로써 분석의 기초가 되는 전사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표 2-10] 연구 진행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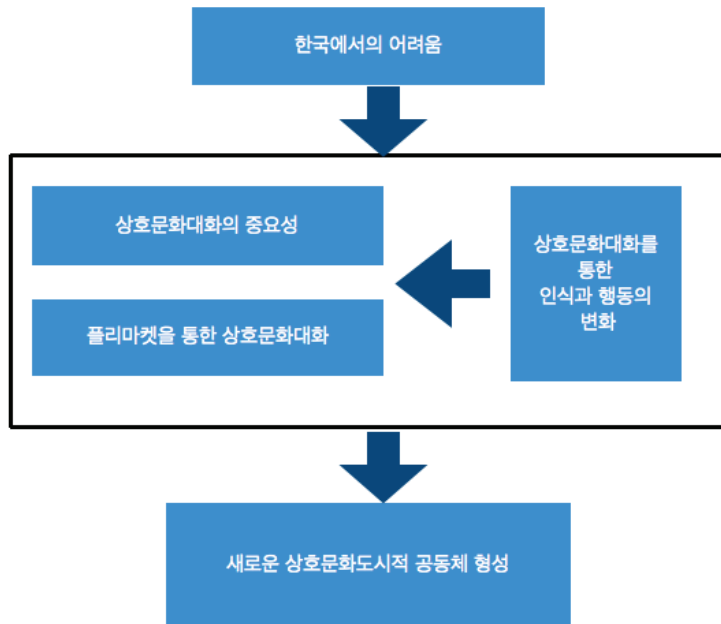
연구주제 설정	• 구성원간 토의를 통한 연구주제 설정
선행연구 모집	• 선행연구 및 관련 논문 수집을 통한 이론적 배경수집
연구 참여자 표집	• 연구자 및 주변인의 추천과 유학 중인 구성원의 참여로 유학생, 선주민 16명을 선정
연구 안내	• 연구목적, 면담내용 등 절차에 대한 안내를 구두로 설명
면담 실시	• 2019년 8월 22일, 10월 26일 양일간 면담 실시 전 연구에 대한 안내와 유의사항 및 전달 참여 동의 득함 • 행사 참여 후 대상자 한 명당 한 명의 연구원과 보조원 1명 총 2명이 개별 면담 실시
면담 완료 및 전사	• 면담내용 전사 실시
전사본 신뢰도 확인	• 연구팀원이 상호적으로 전사 신뢰도 확인
자료 분석	• 면담 내용이 풍성하다고 판단한 면담전사본들로 1차 부호집 개발
신뢰도 및 타당도 확보를 위한 노력	• 자료분석 과정에서 3명의 공동연구자의 참여를 통한 분석신뢰도 확보. • 수집한 자료 간의 대조를 통해 수집한 자료의 진실성 확보 노력
결과분석 및 결과해석	• 한국에서의 어려움, 상호문화 대화를 위한 플리마켓의 유용성, 프로그램 구성 및 유의미성, 참여목적 달성 및 인식개선으로 인한 변화 등 관련한 4개의 대주제와 7개의 하위주제 도출

2) 인터뷰 내용 분석

심층면담을 통해 유학생들은 **한국에서 소통과 관계에 관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상호 문화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플리마켓의 유용성을 발견하였다. 또한 상호문화대화를 위한 플리마켓 프로그램 구성 및 유의미성, 참여목적 달성 및 인식개선으로 인한 변화를 도출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플리마켓과 상호문화대화 프로그램을 통한 인식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표 2-11]), 각 주제를 도식화하여 구성한 내용은 다음의 [그림 2-14]와 같다.

[표 2-11] 개별면담을 통해 도출된 주제

대주제	하위주제
한국에서의 어려움	언어로 인한 어려움
	선주민의 차별 대우로 인한 어려움
상호문화대화의 중요성	나, 너, 우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감의 중요성
	유학생과 선주민 간의 소통으로 인한 인식의 변화
플리마켓을 통한 상호문화대화	상호문화적 대화와 소통, 교류를 위한 편안한 공간의 필요
	문화 전달 매개로서의 플리마켓
인식개선으로 인한 행동 변화	타자화를 멈추는 행동의 필요성
	차이에의 긍정적 접근의 시작
상호문화적 공동체 형성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상호문화적 공동체로의 출발



[그림 2-14] 유학생들의 한국에서의 경험 및 상호문화적 대화를 통한 공동체 형성

면담에 참여했던 연구 참여자들 중 유학생 대부분은 한국에서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었다. 어려움은 크게 언어로 인한 어려움과 선주민의 차별대우로 인한 어려움으로 구분되었는데, 모든 유학생 참여자들은 초기에 언어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으며, 한 참여자는 학교생활 중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한 채 한 행동들로 인해 차별적 시선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선주민의 차별대우로 인한 어려움도 있었는데, 특히 한 부모가 외국인인 이주배경 가정 출신 유학생의 경우 선주민 성인의 민족주의적, 단일민족신화적, 동화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인해 큰 트라우마가 남을 정도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인터뷰 과정을 통해 한국에서 태어나 자라며 단일민족적 신화적 교육을 받은 세대의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더욱 체감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유학 초기 한국어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본인 스스로 말을 하지 못해서 겪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학교나 기관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데서 오는 어려움도 있었다. 임희진 외(2016)에 따르면 국내 대학의 국제화는 양적으로는 팽창되었으나 질적 수준에서는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된다. 이 부분은 유학생 유치 후 학교에서 한국어 과정을 지원한다거나, 통역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의 적절한 서비스가 있었다면 겪지 않아도 되었을 어려움이기에,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제가 태국에서 6학년을 졸업을 하고 여기 와서 중학교를 전학하려고 했는데 제가 중간에 와서..언어가 안되는..혼자 독학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학교 갔을 때 제가 혼자 정반대 길로 가니까 다들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구요. 학교를 못 가니까 어떻게 사귀어야 할지 모르고 언어 되게 어렵고 또 태국어랑 한국어 문법이 완전 다르니까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C ; 7, 33- 8, 6)

유학생활..언어가 안되는 게 제일 어려웠었죠. 뭐 배우기가 힘들었던 점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고요. 말하는 게 제일 힘들었었어요.

(F ; 14, 24-26)

제가 제일 먼저 왔을 때는 근처에 아무도 없었다는거? 그리고 어딜 가서 도움을 요청할 데도 많지 않고..그 점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F ; 14, 28-31)

중국을 제가 오래 유학생활을 했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게 음.. 중국인 친구들?을 많이 못 만났던 게 저는 좀 많이 아쉬웠었어요.

(E; 10, 7-9)

저도 중국에서 유학하면서 한국인들은 한국인들끼리 막 뭉쳐다니거든요 근데.. 여기 한국에 와있는 다른 유학생? 외국인 유학생분들도 아.. 비슷하구나, 별반 다르지 않구나 라는 걸 참 많이 느꼈고요. 이런 플리마켓을 열어서 어.. 한국 분들도 오시고 이제 외국인 유학생분들도 오셔서 다 같이 뭔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E; 10, 15-22)

연구 참여자들 중에는 **선주민의 차별대우로 인한 어려움**을 겪은 경우도 있었다. 아버지가 필리핀인인 이주배경 출신 유학생 D의 경우는 아버지가 외국인인 것을 알리지 않고 있다가 친구들이 알게 된 후 심한 차별을 경험하였으며, 이는 왕따 경험으로 이어졌다. 선주민들은 D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경우에도 심한 차별 발언 및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아버지가 딸과 함께 다니는 것을 꺼리게 되었다고 한다.

부모님이 외국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다니다가 나중에 들리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반 친구들에게 돌 맞기도 하고 막 피가 더럽다고 막 이려고 외국 사람의 자녀가 어떻게 여기에 있냐 피가 섞인 게 한국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셨던 분들도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왕따 시절도 받기도 했었고

(D ; 12, 1-6)

그리고 또 지하철을 타다가도 어 아버지랑 단 둘이 있다보면은 아버지가 그래도 피부색이 다르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저의 아버지한테 여기 한국에서 꺼지라고 이렇게 나쁜 소리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많은 상처가 되다보니까 아버지가 그 후로부터는 저랑 이제 단둘이 나가려고 하지 않을 때가 좀 많이 있었던 사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D ; 12, 8-12)

저는 좀 많이 충격적이었어요! 우리 사회가 아직도 차별의 씨앗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정말 우리가 화개하고 우리 모두가 다민족? 다양한 민족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 우리나라는 우리 사람 한국 사람들은 자국민 문화만 너무 추구하고 다른 문화들은 너무나도 심각하게 차별적으로 바라보고 있구나.. 좀 생각하게 되었고, 또 제 모습을 바라봤을 때 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 않잖나.. 생각이 많이 들어서 좀 반성도 많이 하고 제 시야가 많이 변화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O; 31, 19-28)

유학생들과의 면담을 통해 이들이 지속적인 유학생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다양한 상황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다. 대부분의 유학생은 언어로 인한 어려움이나 차별대우로 인한 어려움을 겪음과 동시에, 친구를 만드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다름을 불편해하는 선주민 학생들의 인식과 언어의 장벽은 혼자 노력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로 인해 유학생들은 선주민 학생에게 다가가기 보다는 같은 나라 출신 유학생들 혹은 타국 유학생들과 만나는 것을 더 선호하게 된다. 이경상(2018)에 따르면 중국 유학생들은 같은 학교 중국 유학생들과의 개별적 상호정도가 많을수록 대학사회 생활에 잘 적응하고, 한국인 동료 혹은 선후배와의 어려움을 느낄수록 한국 사회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다고 하였다.

정부와 국내 대학들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적극적 유치 정책으로 인해 선주민 학생들은 눈에 띄게 늘어난 외국인 유학생의 유입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생각지 못했던 낯선 타 문화권 학생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김성훈(2017)은 선주민 학생들의 질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문화화 되어가는 대학 생활이 국내 대학생과 유학생 모두에게 불만을 초래하고 반목 현상을 가져왔다고 보았다. Jon&Kim(2011)도 선주민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 간 접촉 및 상호교류의 부족을 문제로 제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플리마켓을 매개로 상호문화대화의 장을 열었으며, 이를 통해 타 문화에 대해 낯설게 바라보며 다름을 틀림으로 인식했던 상황에서, 타 문화에 대한 긍정적 생각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한 인간’임을 깨닫게 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상호문화대화의 중요성은 크게 첫째, 나, 너, 우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감의 중요성 둘째, 유학생과 선주민 간의 소통으로 인한 인식변화의 하위주제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나, 너 우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감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유네스코가 발간한 Education Pack(1995)에 의하면 상호문화적 접근은 ①자신을 낯설게 바라보기(외부로부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②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을 이해하기, ③다른 현실과 익숙해지기, ④차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⑤긍정적인 행동, 가치, 태도를 가지기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상호문화대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 각 섹션에 상호문화적 접근을 적용하였다.

상호문화적 접근이 적용된 “나를 알아가는 시간, 너를 알아가는 시간, 나와 네가 춤이 되는 시간”의 세 섹션을 통해 나, 너 우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가면서 참여자들은

서로 소통함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특히 참여자들은 첫 번째 섹션에서 타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 먼저 당연히 했던 자신과 자신의 문화에 대해 객관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을 체험한 것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또한 ‘다름’, ‘차이’ 등을 틀렸거나 불편한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접근함으로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많은 인식의 변화를 경험했다.

마지막 섹션에서는 함께 아프리카 대륙의 ‘와카와카 춤’을 현지인들에게 배웠다. 예술을 통해 언어가 달라도 서로 함께 바라보며 하나가 되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면담 참여자뿐 아니라 행사 후기를 남긴 많은 연구 참여자들이 ‘와카와카 춤’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고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남겼다. 상호문화대화, 상호문화소통은 비언어적으로도 가능함을 경험한 시간이었다.

사실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놀라웠어요. 이게 뭐였냐면, 이 문화 자체가 서로 상호 간에 존중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를 서로 알아가자라는 취지인데, 음..사람들과 첫인상의 이미지 나누는 것도 너무 좋았고, 그 공통점 찾기도 너무 좋았고 근데 그 시간 전에 일단 우선 나부터 상대를 알기 전에 나부터 이렇게 찾는 그 다섯가지의 그 과정들이 너무 좋았고요. 그 과정들이 나를 알고나서 상대방을 이렇게 찾아가는 순서가 맘에 들었습니다. (A; 1, 14-21)

대화시간은 너무 좋았어요. 네. 오랜만에 캘리하는 것도 되게 재밌었고, 옛날 캘리하는 시간도 떠오르고 너무 신기했어요. (C; 8, 34-35, 9, 1-2)

뭐 다..인상 깊었지만 특히 서로 같이 몸을 움직인 거 있죠? 그 와카와카 춤인가요?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즐거움 속에서 원지 서로 말로. 몸으로 하는 대화를 체험한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상 깊었고 또 즐겁고 신났습니다! (J; 18, 6-10)

언어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몸짓만으로도 서로 화합이 되는 듯한 느낌이 났고요, 우선은 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확실히 이해하는 듯한 느낌? 그리고 음악과 율동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냥 화합하는 데는 최고였습니다. (J; 20, 6-12)

어 ... 다문화 상호문화라고 해서~ 제가 생각을 많이 한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어떤 힘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근데.. 여기 부스를 몇 가지 실행했잖아요. 근데 많은 부스가 거의 다. 나를 알고?! 나를 표현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원가..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이런걸 생각하기 이전에 나를 먼저 알아가야 되는 게 건강한 방법이구나 라는 걸 다시 생각을 했고, 그리고 세분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세 분의 이야기 속에서 공통점을 느낀 건 다른 게 아니라... 공통점을 찾고 그 안에서 그냥 평범하게 사람처럼! 똑같이! 대하는 게 그들이 더욱 원하는 방향이겠구나~ 라는걸 생각을 많이 해서 어..좀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조금 더 깨진 것 같아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L; 25, 26-35, 26, 1-3)

아-나를 알아가는 시간? 음.. 나를 알아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들에 대해서 쉽게 대답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나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알기 어려웠고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자한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간이 조금 더 많아..많은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N: 29, 19-25)

어.. 나를 알아가는 시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다른.. 우리 나와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았던 친구들을 만나고 소통하는 자리였잖아요? 근데 먼저 나를 알아가고, 나의 감정에 대해서 묻는 그 시간이..어 내가 먼저 나를 이해할 때 누군가를 더 이해할 수 있다.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 시간의 흐름이 되게 건강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M: 27, 18-24)

어.. 나를.. 알아가는..나를 알아가보는 시간을 통해서 아, 내가 몰랐던 점들도 많이 발견하고, 자는 되게 처음에 다가가는 게 어려웠는데 이런 아이스 브레이킹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랑 또 만나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또 활발했던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또 다른 사람들과랑 저의 관계를 바라봤을 때, 어.. 사실 한 번 보고 말 사람인 사람들도 있고 학교에서 본 분도 많은데 한 번도 말을 못걸어 본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더 말을 걸어보고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O: 31, 6-16)

둘째, 유학생과 선주민 간의 소통으로 인한 인식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현남숙(2019)은 세계화에 따른 다문화 사회가 도래한 후 문화적 대화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다문화 사회 안에서 이전보다 소수 문화가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같은 공간에 존재해도 문화적 교류가 없는 병렬사회나 다수의 단일문화가 존재하는 사회가 되어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상호문화적 대화이다. 상호문화적 대화란 문화와 문화 간의 대화에서 더 나아가 문화 속의 개인과 또 다른 개인의 대화를 말한다. 플리마켓에 참석한 모든 연구 참여자들은 서로 간의 상호문화적 대화로 인해 인식의 변화를 경험했다. 김영진(2016)에 따르면 상호이해를 위한 공감적 대화를 통해 서로가 타자를 더 잘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공감적 대화의 기준은 ‘서로의 관점에 대한 개방적 태도’, ‘타자 관점의 이해’, ‘공정한 조건에서의 소통(권력의 강제나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및 대화 주체의 무제약적 허용)’이다. 이는 판단을 중지하고, 특수한 형태의 자기 이입(타인에 대한 이해를 위한 감정 이입)과 상호주관성을 추구하며, 대화 시의 윤리적 태도와 반성적 태도를 가질 때 충족된다. 면담자들과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서로를 대하여 짧은 하루의 만남에도 불구하고 깊은 공감을 통한 상호소통을 경험하여 인식의 변화를 갖게 되었다.

여기 와가지고 이제 완전히 다른 분야에 새로운 사람들이랑 얘기해보니까 또 새롭게 알아가는 게 있고 또 다양한 사람들을 접하면서 기존에 그 맨날 똑같은 생각에서 벗어나가지고 좀 다른 생각들을 할 수 있었던 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I; 15, 25-29)

제가 늘 이제 약간 좀 새로운 걸 해보고 싶고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싶고 그런거를 되게 해보고 싶었는데 되게 좋은 경험이었다는 것 같아요. 막 무슨 유럽에 한 달간 머물고 싶다. 뭐 이런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 여러모로 큰 좋은 자극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H; 15, 30-35, 16, 1)

여기 와가지고 이제 완전히 다른 분야에 새로운 사람들이랑 얘기해보니까 또 새롭게 알아가는 게 있고 또 다양한 사람들을 접하면서 기존에 그 맨날 똑같은 생각에서 벗어나가지고 좀 다른 생각들을 할 수 있었던 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I; 15, 25-29)

오늘 그 다문화라는 얘기들을 요즘 참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다문화를 제가 실질적으로 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또 플리마켓은 뭐..제가 나름대로 또 많이 경험해보고 했는데 스음.. 그런 차원에서 그 다문화를 어떤 그 코드를 내건 플리마켓은 어떨까 참 궁금했구요! 오늘 사실 저런 3대가 왔습니다. 저의 딸이 마침 이런 행사를 주관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또 손주도 같이 대려왔는데요. 저는 오늘 여기 참석하고서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경험을 했다, 굉장히 서프라이즈 했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다르다는 것이 이질적인 것이 아니라 다름으로 인해서 서로를 존중하고 또 서로 상호에 더 이해를 하고 그러면서 더 상생할 수 있다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정말 그 보람차고 정말 정말 좀..특별한 경험이라서 아주 오늘 참석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J; 17, 11-25)

상호문화대화를 플리마켓이라는 매개를 통해 진행한 이유는 ①상호문화적대화와 소통, 교류를 위한 편안한 공간의 필요 ②문화 전달 매개로서의 플리마켓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 중인 일반적 상호문화대화는 ‘TED’나 ‘세바시’ 등과 같이 강연 형태로, 타 문화권에서 온 강연자의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듣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호문화대화를 통해서 타 문화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강연자에 대한 얕은 라포 형성은 시작될 수 있으나, 깊은 이해와 공감을 통한 인식 개선과 변화는 어렵다. 이를 위해 유기종기 상생마을 단짝플리마켓은 유학생과 선주민 학생이 직접 만나 1:1로 소통하며 교류를 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의 필요성을 생각하였다. 유럽연합은 출범 이후 상호문화적 대화를 사회통합을 위한 중요한 어젠다로 내세우고 있다. 홍종열(2012)에 의하면 도시는 서로 다른 문화공동체 간의 빈번한 접촉과 공존이 일어나는 일상적이자 현실적인 공간으로,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다. 1:1의 소통이 없다면, 서로의 문화에 대한 스테레오타입과 편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여지가 생기기 어렵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10)에 따르면 진정한 대화의 가능성은 우리가 타자에게 일방적 고정관념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을 멈출 때 크게 늘어난다. 단짝플리마켓은 진정한 대화

를 위한 1:1 소통을 이끌 의도로 기획되었다. 참가자가 가지고 온 다양한 물건에 얹힌 이야기, 구입한 물건을 고른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유학생과 선주민 학생이 편안한 공간 안에서 소통하고 단짝이 되어 앞으로의 시간을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다양함이 힘이 되는 상호문화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홍종열(2012)의 표현처럼, 창조적 다양성을 향한 믿음과 열정이 이 프로젝트 안에 녹아있다.

지속적으로 **상호문화적대화와 소통, 교류를 위해서는 편안한 공간**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타 문화권 학생들이나, 타 문화권에서 유학했던 선주민 학생들은 모두 유학 중인 나라의 사람들과 언어, 문화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서대문구의 한 대학을 예로 들면, 그 학교에는 2천여 명의 유학생들이 있는데, 팀플을 하거나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선주민 학생들의 거부로 혹은 유학생들의 두려움으로 섞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선주민 학생은 언어가 서툰 유학생이 같은 과제를 수행해야 할 때 그들의 역량 부족으로 팀 전체가 성적을 잘 받지 못할 것에 대해 염려하고, 유학생들은 자신의 언어 수준으로 인해 무시 받거나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할 것에 대해 염려하여서 같은 팀에 소속되기를 거부한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호문화적대화와 소통, 교류를 위한 편안한 공간이 필요함을 생각하게 되었고, 위에 언급했던 것처럼 플리마켓을 통한 상호문화대화를 기획하였다.

네. 어, 사실 뭐 플리마켓이라고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서 지금 나한테는 많은 쓰임이 없지만 누군가한테는 꼭 필요한거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름이 단짝플리마켓이잖아요~ 예 그 하나가 있어서는 사.어 무소용인데 이게 단짝이 하나가 한 쌍이 되었을 때는 굉장히 필요한 물건들이 있는 것처럼,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지고 와서 그 물건을 판매하는 것도 있지만 그 물건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혼자가 아닌 이렇게 함께가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저는 단짝플리마켓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정말 이거다~ 어 이게 어 서로 문화를 존중하고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가는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A; 3, 2-14)

어.. 단짝플리마켓에 대한 소식은 어.. 수업을 통해 듣게 되었는데요~ 어 근데 수업 때문이라기 보다는.. 그 친구들이랑 함께 이런 공간에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같이 한번 가보자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어? 우리 그럼 같이 한번 가보자~ 해서 오게 되었고요. 오전부터 오후까지 지금 시간을 여기서 보내고 있는데. 어.. 소담한 공간에서 사람들이랑 너무 숨가쁘게 이야기하지 않고 또 평안한 마음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B; 5, 22-30)

네! 어.. 유학생들로서는 이 낯선 나라에 와서 또 낯선 사람들과 낯선 공간에 있다는 게 참 쉽지 않았다.. 언어를 넘어서서 마음을 전달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지금 한국 땅에 그런 공간이 얼마나 마련돼있지 않은 것을 많이 느꼈고요.. 어.. 그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같이 모여서 대화하고 음식을 먹고 함께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할 수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어.. 그거는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자 하는 어떤 기획자도 필요하겠지만 또 홍보가 많이 전달되어야 되어야 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낯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를 좀 많이 전달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에 있어선 많이 미흡한 것 같고, 그래서 플리마켓이라는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갖고 접근했던 게 참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B; 6, 2-15)

어.. 있었으면 엄청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도 저분만 아니라 중국말 하시는 사람도 있으실거고 그리고 또.. 다른 외국사람들도 같이 만나서 어떠한 일들을 했었는지 어떻게 잘 적응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할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F; 15, 14-18)

여기 와가지고 이제 완전히 다른 분야에 새로운 사람들과 얘기해보니까 또 새롭게 알아가는 게 있고 또 다양한 사람들을 접하면서 기존에 그 맨날 똑같은 생각에서 벗어나가지고 좀 다른 생각들을 할 수 있었던 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I; 15, 25-29)

소통의 장이자 문화 전달 매개로서의 플리마켓을 통해서 사회적인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볼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의 ‘다문화’ 관련 이미지는 가난, 동남아, 도와야 할 대상이지만, 다문화의 사전적 정의는 ‘한 사회 안에 여러 민족이나 여러 국가의 문화가 혼재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다문화라는 단어는 사람이나 집단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사회 현상을 일컬을 때 쓰는 것이어야 한다. 문화의 사전적 정의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 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하여 낸 물질적·정신적 소득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따위를 모두 포함한다.

현재 진행 중인 다문화 관련 행사들은 각 사람이 지닌 행동양식으로써의 ‘문화’가 전달되기보다 4F(Festival, Food, Folklore, Fashion) 중심적 행사로 오히려 각 사람의 행동양식에 대해 더욱 선입견을 갖게 만들 여지가 있다. 단짠플리마켓은 상호문화대화 뿐 아니라 각 각의 문화, 즉 다양한 하위 문화를 지닌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 양식으로서의 문화를 전달하는 매개의 역할을 하였다. 이번 상호문화대화에서 우리는 실내에서 신발을 신고 사는지, 벗고 사는지의 이야기나 밥을 먹을 때 수저를 사용하는지 포크를 사용하는지, 혹은 손을 사용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과 고민, 살아온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다. 음악을 들으며 악기의 선율과 연주자들의 몸짓을 느끼고, 뮤지컬 배우의 노래를 들으며 다양한 감정을 공유하고, 타 문화권 사람들의 춤을 ‘구경’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추며 공통점을 누렸다. 이렇듯 각 사람이 지닌 문화 전달 매개로 서 단짝플리마켓이 진행되었다.

저는 이제 여행 프로그램을 즐겨 보는데요! 여행 프로그램을 보다보면 좀 시장문화가 아직 남아 있는걸 좀 보게 돼요. 근데 저의 우리나라가 한동안 어떤 대형 백화점이나 이런 기업들로 인해서 좀 시장문화가 많이 죽었었는데, 어.. 소도시를 중심으로 좀 젊은 층들 중심으로 다시 시장을 이용해서 연남동에 동진시장 같은? 어.. 젊은이들이 와서 자기가 만든 공예품들을 팔고 또 와서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들도 많이 봤었거든요? 아직 남아있는 유럽의 어떤 시장문화를 반영해서 어 공간을 좀 더 다채롭게 만든다면 유학생들이 맘 편하게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B; 6, 20-30)

음... 플리마켓 여는 건. 어 태국에서는 없는 체험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생소하고 그리고 다른사람 이 쓰지 않는 그런 물건은 나한테도 필요할 때가.. 그 필요한 사람한테 주면 또 행복..행복을 주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좋았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나는 언어를 ..이렇게.. 잘.. 하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용기를 좀 내고 말하는 게 너무 신기하고 뭐라고 해야 하지..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체험이었어요.

(C; 8, 12-19)

일단은.. 다문화라고 생각했을 때 전 되게 뭔가.. 좀 저와는 다른 좀 그런 느낌이라서 처음에 좀 걱정도 많이 하고 어색할 줄 알았는데.. 와가지고 너무 즐거웠고 재밌었고 또 옹기종기 단짝플리마켓이잖아요~ 서로 이렇게 모여서 되게..이렇게 옹기종기 모이는 모습이 사랑스럽다는 느낌도 받았고요. 각자의 프로그램들이 되게 흥미로웠고 특히 이렇게 나에 대해서 글을 읽어보고 생각나는 글귀들을 적어보는 시간을 통해서 또 되게... 나에 대해서 알아갔던 것 같아서? 네..! 내 감정들에 대해서 알아갔던 것 같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K;21. 32-35, 22, 1-6)

음.. 친구들.. 그니까 앞에서 말해주신 친구들의 말을 들었을 때 느낀 점은 어..서로 다름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걸 많이 느꼈고 그리고 첫 번째로 말씀해..말..나와서 말해주 친구가 대화를 기적을 일으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친구분께서 3개국어를 하시는데도 대화가 기적을 일으키고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도 서로의 마음이 갔다면 그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해주신..,그 말이 인상 깊었고 그래서 언어가 다르더라도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바라보고 방향성을 바라보냐에 따라 마음이 갔다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M; 27, 29-35, 28, 1-5)

어 저는 되게... 신선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항상 참여하는 입장으로 어 제가.. 행사를 했었는데 저희가 직접 주도하고 또 이걸 팔아보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랑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하고 그 사람들이랑 또 같이 이야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되게 재밌었고 또 **언어**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함께 웃으면서 지내는 시간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O; 32, 8-14)

어... 일단 되게 뭔가 따뜻했어요! 플리마켓을 진행하고 연주를 진행했을 때 뭔가. 아예 모르는 사람이 와서 도와줬던 것도 아니.. 아니었고 다 지인들이 와서 되게 도와주셨고 되게 그랬잖아요. 그게 뭔가 되게 따뜻하게 느껴졌고 다양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것을 통해 서..서로를 더 바라볼 수 있는 도구들이 많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M; 29, 1-7)

아..! 어.. 문화-경험을 많이 한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어.. 플리마켓을 통하여서.. 어. 어떤.. 물건이 만나고.. 뭐야 하하하 사람이? 물건과 사람이 만나는 건 아니지만 사람과 사람이 만날 수 있게 물건이 큰 역할을 했다. 물건 외에도 이렇게.. 어.. 감정카드로 얘기도 하고 그래서 더 많이 대화를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N; 30, 20-26)

짧은 시간이었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상호문화대화를 통해 인식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다문화’라는 단어를 사회 현상 아닌 대상에 쓰는 것을 멈추고, 나와 다른 문화권에 살다 온 유학생들에 대해 타자화를 멈출 것을 다짐하였다. 또한 차이를, 다름을 틀림으로 생각하고 피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에 긍정적으로 접근하여 봄을 통해 앞으로 만나게 될 다른 유학생들에 대해서도 새롭게 깨달은 것을 적용할 동력을 얻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나를 알아가는 시간, 너를 알아가는 시간, 나와 네가 우리로 춤이 되는 시간을 통해 타자화를 멈추는 행동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특히 첫인상 게임을 통해 내가 느끼고 있는 상대에 대한 확신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서로 질문에 대답하는 시간을 통해 타 문화권의 사람들과 나의 생각이 같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너를 알아가는 시간 중 세 명의 유학생의 이야기를 통해 타 문화권에서 왔다고 하여 타자화하여 차별할 때 그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을 타자화하지 않고 환대할 때 얼마나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듣게 되었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많은 생각의 변화를 겪었다. 특히 본인을 ‘프로 이방인’이라고 소개한 중국 출신 유학생의 말 중 “대화는 기적을 만든다”는 참여자 모두에게 대화의 중요성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하였다.

어.. 유학생 친구들..이 제 주변에도 있고 같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사실, 그.. 환경과 문화에 대해서 크게 그 친구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 할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시간을 겪으면서 그 친구들도 그 친구들 안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되게.. 낯선 환경 속에서 적응하고 있다는 걸 되게 깨달았고 그걸 무지하고 있었다는 걸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내 옆에 있는 친구들조차도 내가.. 바라보지 못했는데.. 지금 스쳐지나가면서 분명 유학생 친구들을 많이 만났을 것 같은데, 그때는 되게 신경을 쓰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그 친구들을 바라볼 때 어.. 뭔가.. 뭔가. 관심 이런 것도 맞겠지만. 조금 더 아무런 생.. 뭐라 해야하지? 그런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조금 더 그 친구들이 되게 이번에 이 시간을 가지면서.. 유학생 친구분들이 많은 환경을... 환경에 있다와서 그런지 수용적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들었어! 그런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배우고 함께 그거를 대화하면서 살아가면서 그 수용을 삶으로 배우기면 좋겠다란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런부분에 있어서 되게 많이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 고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M; 28, 11-31)

아-어....일단 이 소통의 장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그 제가.. 경험한 세계 안에서만 사람들을 이해하고 어...내가 그런.. 경험한 것에만 관점을 가질 수 있었는데, 조금 더 다양성에 대한 좀 직접적인 경험이 있었고? 특히 첫 번째 말씀하셨던? 네사님이 의사소통의 힘에 대해서 정말 강력하게 얘길 하셨는데 어..우리가 같이 상호협력을 하고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건 대화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 대화의 장이 참 소중하구나 느꼈습니다. (N; 30, 20-26)

한국 선주민으로 살면서 타 문화권 사람들을 많이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본인과 타 문화권 유학생들이 많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박인철(2011)에 의하면 송고와 공감의 통해 바람직한 상호문화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송고와 공감은 ‘감정’에서 온다고 하였다. **차이에의 긍정적 접근**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며 타인에 대해 이해하려는 송고의 감정에서 출발한다. 서로에 대해 막연히 ‘다르다’고 생각하던 두 문화권의 사람들이 대화하면서 공통점을 발견할 때, 또는 다르지만 이해할 수 있는 지점을 발견할 때 공감이 시작된다. 박인철(2010), 윤병렬(1999)은 상호문화성의 개념을 “1)각 문화 간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한다. 2)문화적 차이를 목적론적으로 위계질서화해 이해하지 않고 모든 문화에 대해 동등한 가치를 부여한다(인정한다). 3)2의 전제 하에서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상호공감대와 융합의 가능성을 모색한다”라고 이해한다. 상호문화성은 이렇듯 이질성과 동질성을 모두 포함한다. 서로 융합될 수 없어 보이는 두 가지의 상반된 개념은 서로 간의 대화 속에서 고찰되며, 학문적으로 명확히 설명할 수 없는 모호함과 애매함도 공감과 수용으로 향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타 문화권 사람들은 나와 다를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상호문화대화에 참여하였으나 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공통점을 발견하였다. 또한 유학생들의 어려움이 단지 ‘문화적’인 차이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개인적 성향과 성격에서 기인할 수 있음을 생각하며 그들을 유학생 ‘아무개’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아무개’로 대해야 할 것을 고찰하였다. 또한 더 잘 해주려고 하는 배려가 오히려 차별이 될 수 있기에¹⁰⁾ 평범한 대화를 통해 서로 알아가는 것이 중요함도 깨달았다.

¹⁰⁾ https://m.sedaily.com/NewsView/1VGG3GP1PT#_eniple

네. 저희 카페에도 사실 유학생 친구들이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면 뭐.. 뭐.. 빵도 사실 서비스로 주기도 하고 음료도 가끔은 서비스로 주고 또 뭐 물어보면 근처에 맛집도 알려주고 어.. 우리 문화도 알려주고 뭐 이렇게.. 제가 했었는데 그 친구들에게 요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 (쓰음) 그 친구들도 그런 고민이 있더라고요. 외국인 친구들끼리 다니면서 사실 한국에 왔지만 한국 문화와 한국 언어를 배우러 왔지만 실질적으로 한국 사람과 친해지는 일은 많이 없었던거요. 그래서 그중에 한사람이 어 제가 될려고 조금 더 살갑게 하고 또 다양한 서비스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통해가지구 한국 문화를 전했는데 이제 제가 하지 않아도 이..어.. 단짝플리마켓을 통해서 그 친구들이 한국인을 알아가고 한국 문화를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적극 추천하겠습니다. (A; 2, 17-31)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교적이나 정치적인 문제들 그런 문제가 많이 파생되어져 있고 또 그게 사회 문제화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 사람과 사람이 같이 맞대고 또 서로 이해하는 것이 이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황 따라서 또 그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도우는데? 돕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지구 가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 또 다른 나라에 가서 어떤 도움을 받을 경우도 있을테고요. 그래서 좀 더 그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해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J; 18, 31-35, 19, 1-6)

아..! 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그런 이주배경을 가진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 어떻게 유학생 친구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고 먼저 이야기해보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저는.. 제가 언제라도 유학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 먼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주는 것이.. 맞..맞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N; 30, 20-26)

그 상호문화대화를 하면서 되게..어..대화의 주인공이었던 친구가 사실 저랑 유대가 있는 관계가 있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에 대해서 제가 이때까지 정말 몰랐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인지 꽤 됐거든요. 6개월에서 거의 1년 가까이 된 친구가 있는데, 그동안 많이 대화를 했다고도 느꼈는데.. 정말 이 친구가 가지고 있던 어떤 아픔들? 이런 거에 대해서 어.. 그 동안 묻지 않았구나 라는 걸 생각을 많이 했고 내가 묻지 않았니까 이 친구도 애..애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음.. 그 동안 한국에서 우리가 몰라서 또는 관심 갖지 않아서 많은 상처들을 줬던, 줬었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유학생들도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K; 22, 10-24)

음... 솔직하게 말하면 그렇게 다르지 않다가 가장 커요. 그리고.. 그냥 사람 간에 한국 사람들도 서로 다 다른 게 많잖아요? 그것처럼 다른 문화 사람들도 우리가 한국 사람들에게 다름이 부딪히는 것처럼 다른 문화 사람들도 그냥 다르게 부딪히는 한 부분이겠다 라고 많이 해서..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해서 더 크게 뭐.. 더 배려하고 사실 이런 감각이 좀 전 컸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똑같이 나랑 다름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그 안에서 공통점을 찾고 같이 그냥 평범하게 대화를 이어 나가는 게.. 그들에 마음에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새로운 상호문화적 공동체 형성을 위해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박인철(2010)에 따르면 상호문화성의 출발은 문화적 차이의 인정이다. 현재 한국은 통계청 추산 2028년 이주배경자 10%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¹¹⁾. 타 문화권 인구가 전체 국민 수의 10%가 넘을 때

선주민과 이주민 사이의 충돌이 본격화된다. 최현아(2011)에 따르면 2011년 2월 10일 프랑스 공영방송 TF1에 출연한 프랑스 대통령 사르코지(N. Sarkozy)는 “프랑스에서 다문화주의 정책은 실패했다”고 선언하였다. 이러한 사르코지의 실패선언은 유럽연합 내에서 처음 발표된 것이 아니라, 독일의 총리 A. Merkel, (2010년 10월 16일)과 영국의 D. Cameron(2011년 2월 5일)에 이은 세 번째 실패선언이었다. 이는 이주자의 안정된 정착에 집중한 나머지 선주민의 요구와 정체성에 대해서 고려하지 못한 것에 기인하였다. 이제 한국은 앞선 다문화주의, 상호문화주의 채택 국가들의 성공과 실패를 교훈 삼아, 새로운 상호문화적 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 이는 무조건 하나의 문화로 동화된 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문화적 이질성을 틀린 것이 아닌 다양성으로 바라보면서도 선주민의 정체성 역시 보호될 수 있는 공동체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 형성의 시작을 위해 옹기종기 상생마을 프로젝트는 플리마켓이라는 매개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앞으로 지속적인 상호문화대화를 위한 공간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상호문화적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두 번의 프로토타입 프로젝트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출발을 함께 하였다. 1차에 참석했던 참여자들은 대부분 2차에도 오기를 희망하였으며, 실제로 많은 참여자들이 재방문 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의 대부분이 다음 상호문화대화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면 함께 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참여자들은 상호문화대화를 통해 깨달은 것을 앞으로의 실생활에 적용하고자 다짐하였고, 다문화 사회에 돌입한 한국 사회에 발맞추어 본인의 생활 습관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삶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네- 어 옹기종기 상생마을 단짝프로젝트에 저도 오늘 처음 참여해봤는데 제가 만약에 받아만 주신다면 저가 진짜 시간이 되는 한 이거에 계속 참여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첫출발인데 이게 앞으로 얼마나 무궁무진하게 성장해 갈지 저도 너무 기대가 됐어요. 오늘 참여를 해보고 나서 그래서 일단.. 저희 카페공캠에서 이렇게 같이 함께하게 돼서 너무 좋았고 어 이 카페공캠과 함께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상생마을이 많이 일어나고 더불어서 여길 또 벗어나서 더 크게도 많이 어 이렇게 어 옹기종기 상생마을에 그 의미처럼 단짝플리마켓이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전 세계에도 알려지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거라고 제가 오늘 아주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저 같이 좀 키워주세요~

(A: 3, 18-30)

11) 카페공캠 <https://cafegongcam.modoo.at/>

네! 올.. 올생각 있구요 제가 제 주변에 유학.. 친구들이 다 고향으로 가서 너무 아쉬운데.. 만약에
이왕 친구가 있으면은 추천해서 같이 올려고요. (C; 9, 5-7)

그리고 제가 기회가 닿는다면 저도 이제 세상을 살만큼 살았으니까 스읍... 제가 살아왔던 세상과
또 앞으로 나아갈 세상들 이런 것들을 저의 자녀와 손주에게 어느 것이 이렇게 화합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가, 이런 것이 먼 데 있지 않고 이렇게 소소한 작은 행사를 참석함으로 해서 그런
일들을 체험하고 또 그런 인식을 또 가질 수 있게 돼서 정말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했구요 이런
행사에 더 많이 그 멀리 알려지고 홍보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지역에서도 이런 행사가 연계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또 세계가 같이 한.. 정말 지구 가족이 되는
그런 체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즐겁고 보람찼습니다! (J; 17, 27-35, 18, 1-2)

굉장히 저는.. 기획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이제 유학을 하러 온 사람들은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좀 더 예민하게 볼 수도 있고 또 서로 같이 자국에 가서 또 우리나라 문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생활상을 또 알리는 메신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이런
일 들을 하는 것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상대 문화도 존중할 수 있고 우리 문화도
정확히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주 좋은 취지의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J; 18, 15-24)

네..! 어.. 이번에 만나면서 되게 유쾌하고 재미있고..그런..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다르다고 생각해서 어렵게만 느껴졌던 것들이 오히려 흥미로워졌고 신기해졌고 더
알아가고 싶다는 마음들이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은 이제 또한
나처럼 나와 대화하길 원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한 번 더 물어봐주고 같이 그런..서
로 나뉘..다..다른 나라권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어요! (K; 22, 25-35, 23, 1)

계속 얘기했던 것 같은데.. 차이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사람으로써의 공통점과 평범함을 먼저. 생각
을 하고?! 다가가야겠다는 게 제, 저희가 느낀 좀..변화예요. (K; 26, 21-24)

어...예를들면 저는 언어가 많이 잘 안되긴 하는데, 그래도! 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할 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핸드폰 어플을 통해서 또 그 사람들에게 그 도움을 많이 또 주고 싶고
먼저 그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먼저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방향으로
제 생활특..습관을 변화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O; 31, 32-35, 32, 1-3)

3) 소결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논의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유학생들은 정착 초기에 대부분 언어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다. 언어 구사 능력의
부족과 문화적 차이는 곧바로 차별대우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다. 둘째, 유학생들이 한국
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타 문화인들의 다름에 대해 틀림으로 이
해하는 인식이 변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선주민들은 자국민의 문화적 문법(Cultural
Grammer)에 대해 이해하고 타 문화권에서 온 유학생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심적 공
간을 확보해야 한다. 타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서로 안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차이

점을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이해와 받아들임은 상호문화적 대화로 가능하다. 유학생들의 부정적 경험 및 차별적 경험에는 선주민의 고의적 차별이 아닌 문화적 정보와 이해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에 서로에 대한 상호문화교육과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다양한 문화의 차이와 개별, 독특성을 알고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선행된다면 서로에 대한 이해가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상호문화적 대화와 소통, 교류를 위해서는 학교 공간 등의 공적 공간 외의 편안한 공간, 즉 1:1로 만나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옹기종기 상생마을 단짝플리마켓은 문화전달 매개이자 편안한 소통의 공간이 되었다. 넷째, 유학생과 선주민의 건강한 공존을 위해 서로 타자화하는 행동을 멈추고 공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차이에의 긍정적 접근은 이러한 공존을 위한 첫걸음이 된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상호문화대화를 통해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상호문화공동체가 형성된다면 유학생이 느끼는 물리적, 심리적 어려움을 줄이고 상생하는 한국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03. 프로토타입 실행

서대문구 유학생들과 함께 만드는 옹기종기 상생마을 프로젝트는 2차례 진행되었고, 2회 모두 프로토타입 형태로 실험을 해보는 과정을 가져보았다. 옹기종기 상생마을 프로토타입은 ‘다같이 잘살자’라는 가치를 가지고 공익 캠페인을 진행하는 서대문구의 <카페공캠>¹²⁾에서 실행되었다. 1차는 2019년 8월 31일, 2차는 2019년 10월 26일 참여로 진행되었다. 처음에 유학생과 한국인들 사이에 우정과 연대를 위한 연결고리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단짝이 되어줄 수 있는 만남을 기획해보자는 취지로 플리마켓의 이름을 단짝 플리마켓으로 명명했다. 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거시적으로는 도시에 대한 철학을 유럽의 상호문화도시의 연구들에서 서대문구에 적용할만한 철학을 바탕으로 설계하고, 미시적으로는 상호문화대화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찰과 만남을 토대로 나를 알고 너를 알고 우리를 연결하는 과정을 포함하였다. 프로토타입의 형식은 크게 물건을 나누고 실질적인 도움을 나누는 단짝플리마켓과 인식의 변화와 정서를 다루는 상호문화대화 시간으로 구성하였다.

[표 3-12] 1차 & 2차 옹기종기 상생마을 프로토타입 실행 내용

프로토타입 실행	일시	장소	참여자 수	내용
1차	2019.08.31.	카페공캠	48명	나, 너, 우리 프로그램
2차	2019.10.26.	카페공캠	32명	플리마켓 & 상호문화대화

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물을 제작하였다. 디자인 시에 과거, 현재, 미래를 고민하여, 장터와 시장 그리고 만남과 대화가 있는 미래의 상호문화도시를 담아보고자 노력하였다. 유학생들의 수요조사 링크는 실질적으로 유학생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국에

12) 부록2를 참조하면 상호문화대화 예시로 제시된 ‘네사’의 더 자세한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다.

서의 경험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는 조사로, 접근이 보다 더 용이할 수 있도록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들의 언어를 고려해서 제작하였다. 주로 SNS를 통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였지만, 엽서 제작도 하여서 직접 만나는 오프라인 홍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엽서는 실제 용기종기 상생마을 진행 시 나를 알아가는 시간의 다양한 파트에 참여해 도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서 참여자들은 마치 여행하듯이 하나의 공간을 탐색하고,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이 어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구적인 장치를 해두었다.

[표 3-13] 용기종기 상생마을 홍보자료

1) 포스터제작		옛날 장터와 지금의 시장과 미래의 상호문화 도시에서의 단짜익플라마켓을 함께 표현해보고자 3색을 활용하여 제작해보았다.
-----------------	--	--

		엽서는 포스터의 디자인과 동일하게 앞면을 구성하여 인터뷰를 하거나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 오프라인에서 홍보용으로 나누어주기도 하고, 뒷면에는 서로 기대어서 만나는 한자의 사람인을 형상화하여 단작플리마켓과 상호문화대화 시간에 각각의 프로그램들을 참여해보고 도장을 받을 수 있도록 고안하였다. 이를 통해서 자신이 나를 알아가는 시간, 너를 알아가는 시간, 나와 너의 만남이 춤이 되는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함께할 수 있는 길잡이이자 옹기종기 상생마을의 지도가 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또한, 뒷면 하단에는 QR코드를 넣어서 쉽게 행사의 내용을 온라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엽서제작		
SNS	3)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옹기종기 상생마을의 다양한 모습들을 공유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의 생생한 모습들을 담고자 하였다.
	4) 페이스북 	SNS를 활용해서 지속가능한 모델의 문화 소통의 장이자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활동 진행 사항들을 공유하였다. ➡ https://www.facebook.com/ok.interculturalvillage/
5) 참여링크		참가신청은 구글 링크를 통해 진행하였다. ➡ https://forms.gle/pzpnSUVmQcHJyD869

6) 유학생 수요자링크



유학생 수요조사는 한국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4개 언어로 이루어져서 답변할 때 용이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 <https://forms.gle/pQBthMYw4XHtgQW7>

SNS를 통해서 카드뉴스를 제작해서 공유하였다. 아직 생소할 수도 있는 상호문화 개념과 처음 시도되는 단짠플리마켓에 대한 홍보이자 인식 개선을 위한 시도였다. 다문화 사회로 나아감에 있어서 꼭 필요한 열린마음, 상호존중, 호기심의 태도를 자연스럽게 전하고, 왜곡되어있는 ‘다문화’라는 용어에 대한 바른 이해와 상호문화도시의 개념들에 대해서 실제 만남의 장 이전에 알릴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이었다.



[그림 3-15] 카드 뉴스

1_1차 단작플리마켓 & 상호문화대화

1) 단작플리마켓 구성

처음 단작플리마켓에 들어서면 세계지도가 그려져 있는 벽을 만나게 된다. 이곳에서 자기 자신이 온 곳을 표시해보고,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남길 수 있다. 세계지도는 직접 참여자들이 그리고 의식의 지평을 넓히는 도구적 장치로 작용한다. 지금 이곳에 있는 사람들의 시야를 넓혀주고 세계시민의식의 관점으로 의식을 유연하게 하는 것이다. 단작플리마켓은 유학생들이 가져온 물건과 기부를 받거나 용기종기 상생마을 진행자들 그리고 한국의 학생들이 가져온 물건들로 함께 운영되었다. 실질적으로 처음 열리는 단작플리마켓이고, 물건의 수 보다는 물건을 매개로 만나는 것에 의미를 두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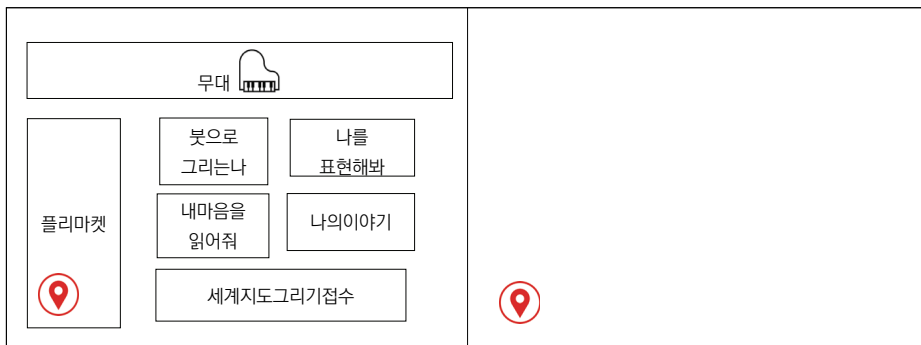
[그림 3-16] 세계지도 접수처

1차 단짝플리마켓에서는 대만에서 온 학생이 본인의 실제 나무공예 작품을 가져와서 판매한 지점이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다. 유학생 외에도 핸드메이드 제품들을 플리마켓에 가져오신 분들이 눈에 띄었다. 물건의 종류는 어린아이의 헤어밴드에서부터 다양한 옷들과 장신구들로 여러 가지가 있었다.



본인이 직접 나무를 깎아서 핸드메이드로 제작해서 만든 도마와 반지를 플리마켓 물건으로 가져온 대만 친구의 물건들

[그림 3-17] 대만 유학생이 가져온 나무 공예 물건들



[그림 3-18] 1차 프로토타입 배치

2) 프로그램 진행

프로그램의 구성은 나, 너, 우리의 파트로 나누어서 처음에 온 참여자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점심 식사 이후에는(케이터링으로 간단한 샌드위치와 김밥 제공) 플리마켓을 돌아보고 물건 구입 및 이야기를 나누고 축하공연을 보고 난 후에 본격적으로 첫인상 게임과 공통점 게임을 통해서 옹기종기 상생마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시작되었다. 가장 마지막 순서에는 난민 싱글맘 분들이 만든 ‘Brave Women’팀과 함께 모두 하나로 어우러져서 아프리카 춤인 ‘와카와카’를 배워보며 다 같이 춤으로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다.

“타인에게만큼이나 많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 상호문화교육이다.”라고 마르틴 압달라-프렛세이는 <유럽의 상호문화교육>에서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바탕 위에서 옹기종기 상생마을은 시야를 넓혀주는 입구의 세계지도 앞에서 ‘어디에서 오셨나요.’, ‘지금 가장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시간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등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동선을 따라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 고전에서 길어 올린 지혜의 문구들로 자기 자신의 현재에 질문을 던지는 ‘내 마음을 읽어줘’ 코너가 있다. 그다음은 세계의 여러 나라 그림책들이 다양하게 펼쳐져 있는 ‘나의 이야기’ 코너에서 ‘지금 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즐기듯이 하나씩 참여하면서 구경꾼이나 참관자로서 임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적극적으로 스며들듯이 자기 자신에 대한 탐구 모드로 들어간다. 자신이 길어 올린 문구들을 가지고 ‘붓으로 그리는 나’의 코너에서는 캘리그라피를 통해서 마음의 문장을 적어보기도 하고, ‘나를 표현해봐’ 코너에서는 뮤지컬 배우에게서 목소리 트레이닝을 통해서 내면의 소리를 밖으로 표출해보기도 하고, 한국학생이나 유학생이나 발음 교정을 받기도 한다. 평상시 자주 접하지 않는 스스로에 대한 성찰의 여정을 거쳐서 1부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종료하면, 플리마켓에서 물건들도 살펴보면서 여유롭게 상생마을에 안착할 수 있다. 참여한 유학생이나 한국 학생들은 물론 1차 프로토타입 실행 때에는 길을 가던 주민들이 참여하기도 하였다. 그만큼 옹기종기 상생마을의 단짝플리마켓은 열린만남을 추구하는 열린공간이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남녀노소 모두에게 공평하다.

[표 3-14] 단짠플리마켓 진행 순서

52

1) 1부-나를 알아가는 시간 <내 마음을 읽어줘>



2) 1부-나를 알아가는 시간 <나의 이야기>



3) 1부-나를 알아가는 시간 <붓으로 그리는 나>



4) 1부-나를 알아가는 시간 <나를 표현해봐>



두 번째 <너를 알아가는 시간>에서는 참여자들 간에 실질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간으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첫인상 카드를 한 명씩 만나면서 나누어주고, 인사를 나눈다.

각자가 받은 카드의 개수를 세어보고, 주로 많이 받은 첫인상 카드가 있는지, 그리고 그 이미지와 자기가 평소에 생각했던 자신의 모습과는 얼마만큼의 거리가 있는지도 나눠보면 서 자연스럽게 한 공간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첫인상 카드는 총 16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고, 모두 소진하면 자리에 앉는다. 평상시 어떠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내면에 가지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 서로 질문해보는 시간도 가진다. 너를 알아가는 시간은 서로의 차이에 대해서보다 공통점에서 대화를 시작한다. 상호문화대화란 서로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된 부분을 통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더욱 빠르게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원리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자는 다양한 주제를 참여자들에게 공유해주고 시간을 재고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마주 보고 앉아 있는 참여자들에게 알려준다. 그러면 한 칸씩 이동하면서 새로운 상대를 만나 새로운 주제로 또다시 공통점을 시작으로 서로의 일상과 삶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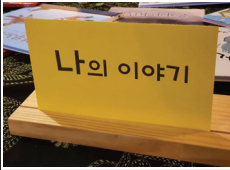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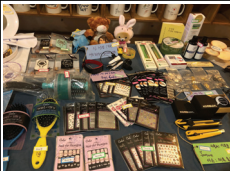
[그림 3-19] 2부 너를 알아가는 시간 <첫인상 게임>



[그림 3-20] 2부 너를 알아가는 시간 <공통점 찾기>

1차 프로토타입 실행에 대해서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표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선주민들에 대한 열정적인 호응과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기대했던 것보다는 유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했지만, 첫 시도라고 생각할 때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이 함께해주었다. 프랑스, 중국, 태국, 베트남 등 다양한 곳에서 온 유학생들이 잠시 머물거나 끝까지 함께 참여해주었다. 1차 프로토타입의 실행에서는 기획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유대감이 형성될 수 있는지 그리고 플리마켓의 참여가 필요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향후 어떻게 상호문화대화가 있는 단짝플리마켓을 확산할 수 있을지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첫째, 나, 너, 우리의 흐름으로 기획된 프로그램의 의도와 시도는 참여자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릴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플리마켓을 탐색해본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 단짝플리마켓이 열리면 또 참여하고 싶으냐는 질문에 참여자 모두 그렇다고 답변을 해주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옹기종기 상생마을 프로젝트를 알리고 일시적인 행사나 이벤트성이 아닌 한 지역의 공동체를 위한 소통의 장으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알리는 노력이 수반될 때 비로소 공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둘째, 1차 실행에서 확인한 것은 몸을 활용한 지점에 대한 긍정적 평가이다. 단순히 물건 교환이나 시장을 생각하고 왔다가, 참여자들과 이야기들도 나누고 서로 몸을 부딪히며 게임도 하고 질문도 나누면서 보다 더 활기가 생기는 지점을 발견하였다. 몸은 비언어로 분리되어 등한시되기 쉽지만, 감정과 정서를 만나기 위해 꼭 들러야 하는 통로이기도 하다. 이 점을 참조로 하여 2차 프로토타입에서는 몸을 활용한 접점의 지점을 더 추가하려고 노력하였다. 셋째, 플리마켓 보다 상호문화대화의 시간에 더욱 사람들은 호기심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았다. 필요의 차원과 호기심의 차원이 적절하게 연결된 프로그램의 조화를 찾아나가는 노력이 필요함을 느꼈다. 이러한 피드백을 통해서 2차 프로토타입 실행 시에는 1차 시기에서 아쉬웠던 그리고 더 강화하면 좋을 내용을 반영해서 준비하였다.

[표 3-15] 1차 단짙플리마켓 & 상호문화대화 프로그램 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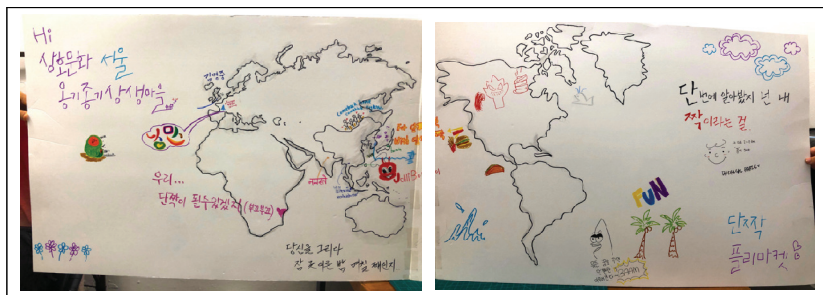
프로그램	항목	내용
1) 나를 알아가는 시간		[내 마음을 읽어줘] 인문학 고전에서 뽑아올린 글귀들로 이루어진 명언 카드를 뽑아서 자기 자신의 감정 상태와 요즘의 근황을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코너이자, 바쁜 일상을 내려놓고 잠시 자기 자신에게 몰입하고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돕는 시간
		[나의 이야기] 다양한 그림책 중에서 자기 자신에게 오늘 가장 와 닿는 문구를 적어보면서 스스로의 마음을 살펴보고, 쉬운 그림책을 통해서 부담스럽지 않게 자신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시간
		[붓으로 그리는 나] '내 마음을 읽어줘' 혹은 '나의 이야기' 코너에서 뽑은 문장이나 지금 여기에서 떠오르는 어떤 것이든 평상시 잘 사용해보지 않는 붓으로 새로운 감각을 통해 글을 써 내려가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에 집중해보는 시간
		[나를 표현해 봐] 뮤지컬 배우가 직접 안내해주는 목소리 트레이닝 시간으로 유학생들의 발음을 더 도와주기 위해서 그리고 한국인들에게도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법에 대해 알려주는 시간
*단짙플리마켓		간단한 점심 식사 시간 이후 본격적으로 단짙플리마켓에 나온 물건들을 살펴보고, 마음에 드는 물건들을 만나보는 시간
*축하공연		[축하공연] 박송아 연구원과 길러 음악감독님의 첼로와 피아노 합주 공연으로 참여자들이 어울려서 문화와 예술의 감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는 시간
2) 너를 알아가는 시간	 	[첫인상 게임] 자기 내면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확인해보는 만남의 시간으로 한 사람씩 첫인상 카드 16장씩을 나누어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그 사람에게 느낀 인상의 카드를 '선물'로 준다. 그렇게 자신의 카드가 소진될 때까지 첫인상 게임을 진행한다. [공통점 찾기] 마주 보고 앉아서 지정된 시간 동안 서로의 공통점을 이야기하고 시간이 되면 파트너를 바꾸어서 또 새로운 주제로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 나가는 대화의 시간

프로그램	항목	내용
3) 너와 내가 만나 춤이되는 시간		[아프리카댄스 와카와카 함께 배우기] 난민 출신의 싱글맘으로 구성된 'Brave Women'팀과 함께 아프리카 댄스 와카와카를 배워보면서 몸으로 서로의 반가움을 표현해 보는 시간
*단짠플리마켓		공식 일정을 마무리하고 남아있는 물건들을 다시 한 번 보면서 필요한 사람들은 추가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단짠 플리마켓에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짐

2_2차 단짠플리마켓 & 상호문화대화

1) 단짠플리마켓 구성

1차에 이어서 2차 프로토타입 실행에서도 접수처에서는 세계지도에 자신의 위치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세계지도는 1차에 썼던 동일한 것으로 계속해서 누적하여 쌓이는 시간도 함께 보여주고, 이와 함께 하단에 <함께함이 시가 되는 오늘>이라는 코너를 준비하여 참여자들이 모두 함께 한 편의 시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은 상호연결성을 예술적으로 접근해보고자 한 시도로써, 용기종기 상생마을에 들어서면서부터 함께 한다는 것의 의미를 참여를 통해 이끌어내기 위해 시도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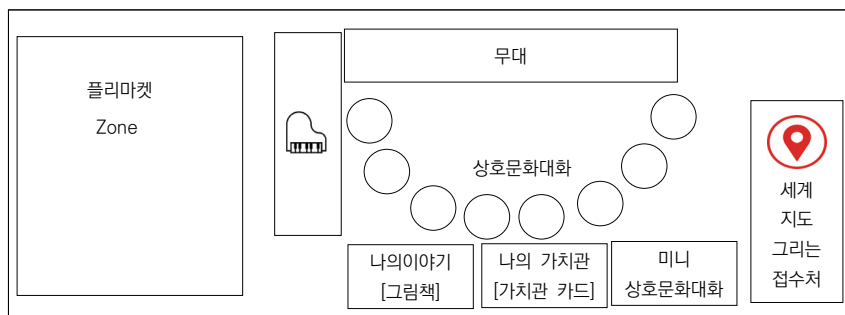
[그림 3-21] 2차 단짠플리마켓 & 상호문화대화 세계지도 접수처



한 줄 한 줄 모든 참여자들이 시를 함께 완성해 나가는 코너로 세계지도 하단에 마련하여 서로가 연결되는 지점을 예술적으로 구현해보는 시간을 마련해보았다.

[그림 3-22] 2차 프로토타입 실행 시 함께함이 시가 되는 오늘

플리마켓의 경우 1차 실행에서는 시간을 구분하여 운영을 했다면, 2차 실행에서는 상시 오픈을 하는 것으로 피드백을 반영하였다. 이를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공간의 세팅과 관련해서는 플리마켓을 시간을 나누어서가 아니라 상시로 볼 수 있도록 별도 구역을 마련하여서, 프로그램 중에도 원하는 사람은 둘러서 볼 수 있도록 배치를 수정하였다. 또한, 운영자가 자리를 비울 때에도 원하는 사람은 물건을 가져갈 수 있도록 무인 결제함을 두어서 자율성을 높였다. 1차 실행의 경우와 비교해서 선주민들의 기부 참여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본 행사에 대한 지지의 의미이자, 유학생들과의 만남의 장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유학생들에게는 합리적 가격에 좋은 품질의 물건들을 구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기능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상호문화대화의 시간은 1차와 달리 한 사람이 집중 조명될 수 있도록 3번의 세션을 마련하였고, 모두 함께 둘러앉아서 각 세션의 발표자에 집중적으로 주목할 수 있도록 구도와 내용을 바꾸었다. 그 배치도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 3-23] 2차 프로토타입 배치 나를 알아가는 시간 & 상호문화대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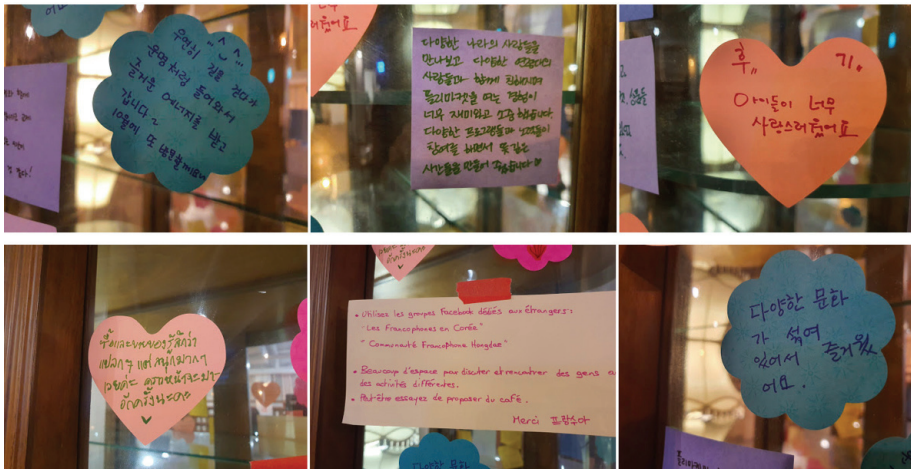
2) 프로그램 진행

1차에서와 마찬가지로 큰 틀은 나, 너, 우리의 흐름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1차에서의 피드백을 반영해서 시간 배분과 내용적 측면 그리고 전체적인 세팅에서 공간 활용에 변화를 주어서 진행했다. 우선 나를 알아가는 시간은 다과 시간과 연결하여 진행하고 조금 더 줄여서 참여자들이 2부의 시간을 충분히 더 느낄 수 있도록 시간을 배분하였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나를 알아가는 시간〉에서 2부의 ‘상호문화대화’ 시간을 더 잘 이끌어내기 위해 서로의 가치관을 탐색해볼 수 있는 가치관 카드를 가지고 유학생들을 위한 그리고 서로 다른 참여자들을 위한 질문을 발굴해보았다. 그리고 그림책에서 마음에 드는 구절을 선택해보는 것은 유지하여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고 스스로의 감정을 살필 수 있는 지점을 찾도록 도와주었다. 또한, 1차에서의 나를 표현해보 대신에 ‘무엇이든 들어드려요’라는 경청의 코너를 마련해서, 편안하게 자신의 근황 토크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낯선 사람들끼리 근황이나 걱정 근심을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공통된 어려움은 집단 지성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도 함께 확인하였다. 다양한 성찰적 질문이 적힌 종이를 뽑아보면서 경청을 연습하였다. 이것은 모든 프로토타입 실행이 끝난 후 상호문화대화 카드를 제작하게 되는 주된 계기가 된다. 다양한 질문을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서로 더 빨리 친밀해질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되고, 친구가 되는 지점에 대해서 나누다가 ‘상호문화대화’에 알맞은 질문 카드를 만들어보자고 이야기가 되어서 이번 프로토타입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간단하게 〈상호문화대화 카드〉를 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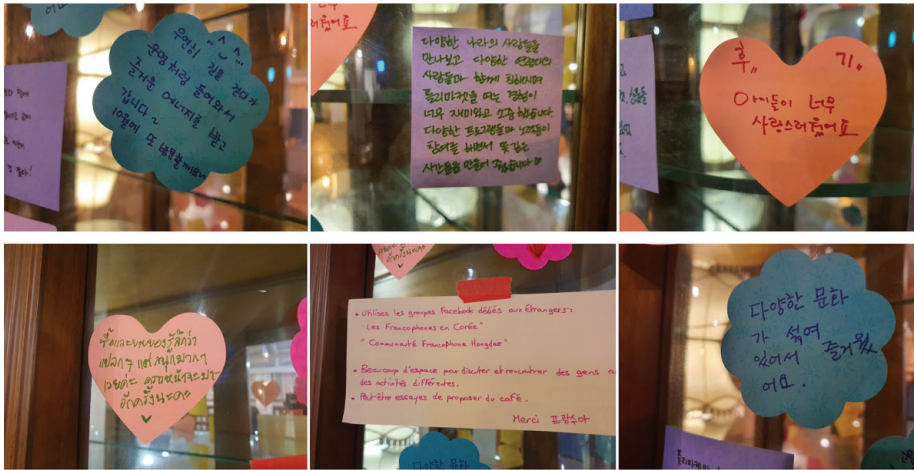
[표 3-16] 2차 프로토타입 실행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 구분	내용		
1) 나를 알아가는 시간	 [무엇이든 들어드려요]	 [그림책에서 찾는 내]	 [가치관 질문]
2) 너를 알아가는 시간 [상호문화대화]			
3) 너와 나의 만남이 떠오르는 시간			

2차 프로토타입 실행에서는 앞서 언급한 대로, 2명의 유학생과 이주민처럼 살고 있는 한국인을 만나보았다. 한 명은 본인을 프로 이방인이라고 소개하는 중국에서 온 유학생 이고, 한국에 온 지는 2개월밖에 안 되었지만 다양한 이주를 경험하며 느꼈던 지점에 대해서 나누어주었다.¹³⁾ 두 번째 상호문화대화는 필리핀 아버지를 둔 국제결혼가정 자녀로 한국에서 산 지 10년이 넘어가는 유학생으로서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느꼈던 점들을 담담하게 나누어주었다. 세 번째 상호문화대화는 한국에서 보다 중국에서 더 오래 살았던 한국인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네사’와의 상호문화대화를 통해서 이번 상호문화대화 카드의 한 질문이 탄생하기도 하였다. ‘당신은 어떤 언어로 생각하나요?’, ‘당신은 모국어 외에 할 수 있는 언어가 있나요?’ 등 좋은 통찰을 줄 수 있는 대화의 시간이 었다. 상호문화대화의 시간을 마치고는 모두가 하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손과 손의 사이에 다양한 색의 한복 천으로 이어져서 강강수월래처럼 움직여보면서 연결감을 회복하였다. 추상적으로만 이해하던 연결과 소통을 실제로 마주하면서 몸으로 체득해보면서 마무리하니, 웅기종기 상생마을이 추구하고자 했던 지점들이 보다 선명해졌다. 함께 참여했던 참여자들이 남겨준 소감들을 몇 개 나누어 본다.



13) HI 상호문화도시 서울 서대문구 유학생들과 함께하는 웅기종기 상생마을 프로젝트 영상스케치
<https://youtu.be/2vVVLrXH6Os>



[그림 3-24] 참여자들의 소감 나눔

3) 소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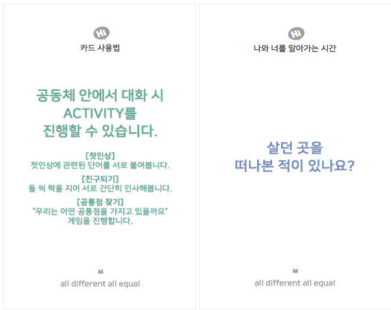
2차례의 단짝플리마켓의 프로토타입을 실행해보면서 느낀 점은 다음의 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첫째, 한국 학생들이나 유학생들이나 만남의 접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특히 서대문구와 같이 유학생의 비중이 높은 도시에서는 이러한 소통의 장이 필요했거나 어떠한 방식으로 만나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어울리기가 힘들었던 것 같다. 인터뷰의 내용을 통해서 그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만남의 지점에서 가장 의미있었던 지점은 바로 '상호문화대화'의 시간이었다. 서로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 나누면서, 유학생들의 한국에서의 경험도 들어보고 한국 학생들의 유학시절 경험을 들으며 누구나 소수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자신의 터전을 떠나서 사는 이방인일 수 있음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공감할 수 있었다. 즉, 역지사지를 배울 수 있는 좋은 소통의 장이자 만남의 장에 대한 시도였다는 점이다. 둘째, 단짝플리마켓의 콘셉트와 운영 방식이 분명해진 지점이다. 플리마켓의 경우 1차 만남 때에서의 아쉬운 지점을 보완하여 2차에서는 물건 배치에서부터 진행 방식도 다르게 하였더니, 단짝플리마켓의 전체적인 진행이 더 자연스럽게 만남에 집중할 수 있는 구도가 되었다. 1차 진행 시 플리마켓을 점심 이후와 끝나기 전에만 진행하다 보니, 시간이 부족하고 운영도 힘이 들었다. 2차 시기에는 무인모금함을 두고 상시 운영 체제로 카페공캠 전체 공간에서 한쪽을 시장처럼 구성해두니 참여자들이 행사 중 언제라도 들러서 구매가 가능한 보다 더 활발한 교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1차보다 2차 시기에는 상호문화대화 시간의 방식도 다수 대 다수 보다 일대 다수의 형식으로 변형했고, 시간도 2시간으로 길게 할애해서 진행했는데, 1차 시기

때보다 더 집중해서 진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추후 웅기종기 상생마을을 진행 시에는 이러한 지점을 참고하여서 프로그램 기획 시에 전체적인 흐름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셋째, 꾸준히 진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 시도이니만큼 홍보도 앞으로 더욱 필요할 것이고, 프로그램 구성이나 진행의 방식도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야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진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처음에 무엇인지 잘 모르고 함께했던 참여자들도 2차 시기에 지인들을 데리고 오기도 하고, 확신이 생긴 사람들이 자신의 이웃들을 초대하여 상호문화대화를 진행하기도 하면서, 더욱 적극적인 개입과 참여가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보완하면 좋을 점을 다음과 같다. 설문문을 통해 확인해보니 서로의 음식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케이터링 대신에 각자의 음식 문화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으로 물건뿐만 아니라 음식도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장터 문화를 접목하면 좋을 것 같다. 축하공연의 경우도 각 나라의 유학생 중에서 자기 나라의 악기 연주를 하거나 유학생과 한국 학생이 즉흥으로 합주를 하거나 서로가 서로의 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으로 진행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상호문화대화의 시간에 참여하고 싶은 혹은 추천하고 싶은 친구들의 명단을 받아서 계속하여 릴레이 형식으로 운영을 하거나 그 날 참여자 중에서 즉흥 세션으로 참여자를 받아도 좋을 것 같다.



[그림 3-25] HI 상호문화도시 서울! 웅기종기 상생마을 영상스케치

[표 3-17] 상호문화대화 카드 제작 내용

구성	내용
	•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친해 질 수 있는 매개 역할을 합니다. • 스스로의 성찰을 위한 질문들로도 유용합니다. • 나, 너, 우리의 연결감 회복을 돕습니다. • 상호문화대화 카드는 휴대가 편합니다. • 남녀노소 상관없이 나눌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상호문화대화 열배 즐기기 Tips] 1) 열린 마음을 준비합니다. 2) 호기심을 갖습니다. 3) 우리 안의 공통점을 찾아봅니다. 4)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5) 다름을 인정하고 긍정합니다. 6) 모호함을 견뎌냅니다. 7) 판단을 유보합니다. 8) 서로에 대해 공감해봅니다. 9) 타인보다 나에게 더 많은 질문을 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10) 내 안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알아가는 기회로 삼습니다.
	• 대화 시작 전에 함께하면 좋을 활동들도 담았습니다. • 평상시에는 잘 생각해보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 자기 자신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그리고 친해지고 싶은 상황에서, 갈등의 상황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투명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차별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04.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서대문구 유학생들의 국적 분포가 타 지역의 분포와는 다소 상이하다는 것을 설문 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이는 국내 국적별 유학생 현황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특히, 다른 지역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백인 학생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으며, 대다수 중국 유학생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시아 국적의 유학생의 분포도 눈에 띄게 많은 양상을 보여준다. 서대문구 유학생들 대부분은 본국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이는 높은 주거비와 생활비로 인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서대문구 유학생들은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받기 위해 고비용의 원룸을 선호하고 거주하는 경향이 짙게 나타났다. 이들의 소비는 인근 편의점과 식당, 카페 등 매우 한정적으로 이루어지며, 1년에서 2년 정도 거주하다가 주거비가 다소 낮은 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따라서 이 지역의 유학생들은 오래 함께 하는 친구가 거의 없고,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차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기도 했다고 말한다. 이렇듯 정서적 교감의 부재를 느낀 유학생들은 친구들이 모여 사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서 학교가 멀어지고 학업에도 손실이 있다고 느꼈다.

1, 2차 단짝플리마켓의 프로토타입을 실행한 결과 첫째, 한국인 학생들과 외국인 유학생들 모두 만남의 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앞서 나타난 설문 조사 분석과 인터뷰 내용에서도 잘 나타나는 부분이다. 그 만남의 지점이 바로 플리마켓에서 이루어지는 '상호문화대화'의 시간이었다. 이는 서로의 다름과 공통점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며, 누구나 이방인이 될 수 있다는 전제를 인식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었다. 둘째, 1차 단짝플리마켓 후에 이루어진 연구진 간평회를 통해 2차 단짝플리마켓은 더욱 보완되어 '상호문화대화'에 더욱 초점을 맞추는 내실을 다졌다는 것이다. 또한, 1차 이후 2차에는 지인들의 손을 이끌고 왔다는 점 역시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한 플리마켓을 넘어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소통의 장이 마련된 것이다. 셋째, 단짝플리마켓을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프로그램으로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홍보와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 방식에 대한 고민이 더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통해 도출된 사실은 무엇보다도 서대문구의 유학생들은 정서적인 교감을 위한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만남의 장소이며, 생활의 필요를 채우는 공간이며, 서로의 이야기를 말하고 듣는 대화의 시간인 것이다.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전 지구적인 삶을 살아가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상호문화도시, 상생적 도시를 위한 이러한 모든 것이 가능한 접점이 곧 단짝플리마켓과 상호문화대화라고 단언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분석한 결과들을 토대로 케이터링 대신에 각 국의 음식을 준비해서 맛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완하면 좋을 것이다. 또 볼거리가 풍성한 장터에 축하공연이 빠질 수 없는데, 이것 역시 각국의 유학생들이 자신들의 음악이나 춤, 악기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특히나 서대문구에는 예술 관련 전문 대학들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취지에 대해서 홍보를 잘 한다면 유수의 인재를 모집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두 차례 진행한 ‘단짝플리마켓 & 상호문화대화’는 규모적으로 눈에 띄는 결과를 도출해 내지는 못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명확한 인식과 행동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은 분명하다. 한국인들과 외국인들 사이의 사고와 행동의 간극을 좁혀갈 수 있는 방법으로써 ‘상호문화대화’는 매우 성공적이었고, 한국인들 사이의 인식의 차이와 강도를 조율하는 방법 역시 ‘상호문화대화’의 장이 열린 단짝플리마켓으로 입증했다고 할 수 있다. 아쉬웠던 점은, 생각보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참여가 양적으로 적었다는 것이다. 차후 지속적인 ‘상호문화대화’의 장을 마련할 때에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정의적 장벽을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려 한다. 모바일과 큐알코드 인식을 사용한 홍보 방식은 선주민 학생들에게는 유용하였으나, 외국 유학생들에게는 각 나라별 유학생 온라인 커뮤니티가 더 좋은 홍보의 장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플리마켓이 이루어진 장소 공간에 대한 유학생들의 근접성을 위해 홍보 시 지도를 더 자세히 제공하거나, 역에서부터 장소까지 스탬프를 배치하는 등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함을 알게 되었다. 고무적인 것은 한국인들의 자발적 참여와 주변의 외국 유학생들과의 거리를 좁혀가고자 노력하는 선주민들의 호응이 많았다는 것이다. 한국인들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포스터와 현수막을 통해 속속 플리마켓 현장에 참여했고, 그곳에서 ‘상호문화대화’라는 낯선 방식 속에서 만남을 경험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시간을 만들고 공간을 채워

나갔다. 두 번의 만남을 통해 나와 너가 만나 우리가 됨을 배웠고, 서로에게 의미가 되어 주는 관계가 되었다. 이는 ‘단짝플리마켓과 상호문화대화’가 인식 개선과 관계 개선의 절대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하지만, 서로의 물리적 거리와 심리적 간극을 좁히는 데 그 기능과 역할은 탁월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단짝플리마켓과 상호문화대화’를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지원정책으로 정서와 인지가 통합된 소통의 장으로서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새로운 TF팀을 결성하거나 새로운 부서를 창설할 필요는 없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주민으로 살고 있는 외국인 혹은 유학생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지역주민들과 만남을 주선하고,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행사 등을 알리고 초대하여 함께 어울리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 마을 행사에 ‘단짝플리마켓과 상호문화대화’를 실행하면 되는 것이다. 상호문화대화를 진행할 수 있는 매뉴얼 카드를 제작하였으니 활용하면 될 것이다.

둘째, 관리정책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외국인 혹은 유학생들을 케어하고 그들이 지역주민들과 재능기부를 통해 만남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단짝플리마켓과 상호문화대화’의 장을 지역 내 유희공간을 활용한 커뮤니티 센터로 활용하는 것이다.

셋째, 유치정책으로 민간외교 사절단을 형성하는 것이다. ‘단짝플리마켓과 상호문화대화’를 통한 우호적이고 친밀한 경험들은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과 추억으로 간직될 것이다.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도 한국에서의 호의와 긍정적인 경험들은 가족과 친구들은 물론 그들에게 한국에 대해 묻는 모든 이들에게 한국과 한국 문화를 전하는 민간외교의 가교역할을 톡톡히 담당하게 될 것이다.

〈HII! 상호문화도시 서울: 서대문구 유학생들과 함께 만드는 옹기종기 상생마을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가 다 담아낼 수 없었던 준비 단계와 과정들, 결과들 그리고 한계 등은 이후에 진행될 연구진에서 보완하고 강화될 수 있기를 바라며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HII! 상호문화도시 서울: 서대문구 유학생들과 함께 만드는 옹기종기 상생마을 프로젝트〉는 현재 진행형이다.

충실한 연구 설계와 자료수집 및 분석을 위해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한계점은 첫째, 연구 참여자의 수가 제한적이며 표집과 선정과정에서 나이, 출신국 등 다양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기에 연구결과 해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데에 있다. 둘째, 면담 과정에서 언어적 한계로 인해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의 생각과 경

힘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는 데 제한점이 있다. 다행히 연구진들이 통역이 가능한 언어였고, 참여자들이 한국어를 잘하였기 때문에 프로토타입의 진행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추후 지속될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셋째, 상호문화대화에 관련한 참고 문헌들이 제한적이고, 더 많은 경험이 축적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참여자들 간의 교류를 위해서는 그들의 현재 상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 심층 면담을 포함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후속연구에서는 유학생과 선주민이 모두 함께 잘 살고 싶은 한국을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데 보다 깊이 있는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출신국 및 의사소통 수준, 문화적 차이 등에서 연구 참여자의 다양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더 많은 참여자 대상과의 면담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 참여자가 언어적으로 표현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보완하기 위해 면담, 참여관찰, 출신국 지인 및 참여자의 지인 중 선주민의 추가 면담 등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참여 유학생의 한국에서의 경험과 한국에 대한 인식의 상호작용에 대해 신뢰할 수 있고 타당한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한국 선주민 학생의 연령에 따른 다문화수용성과 상호문화감수성의 정도가 다를 가능성을 생각하여 연령에 따라 자료를 수집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후속 작업을 통해 주제를 발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정훈, 박치완, 2018, “유럽 상호문화도시정책 특성 연구” 「글로벌문화컨텐츠」, 32, pp.119-142.
- 김현주, 2013, “도시 재생 맥락에서의 유휴 산업시설 재활용 계획 방법 연구”, 연세대학교 건축공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인철, 2010, “이질감과 친근감- 상호문화성의 양면성에 대한 현상학적 고찰”, 「현상학과 현대철학」, 50, pp.67-107.
- 송민혜, 최윤철, 2017, “중국인 유학생의 차별경험이 학교몰입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교육문화연구」, 23권 3호, pp.367-393.
- 오정은, 2012, “유럽의 상호문화정책 연구: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pp.38-62.
- 윤병렬, 1999, “문화의 위기 및 상호문화성과 반-상호 문화성-그 위협에 관한 현상학적 고찰”, 「철학과 현상학 연구」, 제13집, pp.76-78.
- 이승은, 2016, “유휴공간 활용의 정책 현황 및 주민참여 방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지혜, 김영순, 2009, “미디어 이용 실태와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국내 중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15권 2호, pp.183-206.
- 장한업, 2015. 「이제는 상호문화교육이다」, 교육과학사.
- 장한업, 2018, 차별의 언어, 아날로그
- 진미경, 조유진, 2011, “중국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불안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놀이치료연구)」, 14권 4호, p.77-89.
- 최병두, 2014, “상호문화주의로의 전환과 상호문화도시 정책”, 「현대사회와 다문화」, 4, pp.83-118.
- 최일성, 2014, “공화주의의 계보를 통해 본 프랑스 민주주의의 위기와 한계-다문화주의 실패선언에 대한 정치학적 함의분석을 중심으로”, 「프랑스문화예술연구」, pp.289-315.
- 최현덕. (2009). 경계와 상호문화성: 상호문화 철학의 기본 과제. 코기토, (66), 301-329.
- 최현아, 2011, “사르코지 ‘다문화주의 실패’ 선언 논란”, 「시사IN」, 제180호.

홍종열, 2014, “문화다양성과 유럽의 상호문화도시 프로젝트 연구”, 「외국학연구」, 제28집, pp.554-572.

Bennett, J. (2012). *The developing art of intercultural facilitation*. In K. Berardo & D. K. Byram, M. (1997). *Teaching and assessing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Deardorff, Darla K.(2006).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Fall 2006, 10, p.241-266. The SAGE Handbook of Intercultural Competence.

DuBois, R., & Li, M. (1963). *The art of group conversation: A new breakthrough in social communication*. New York: National Board of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s.

Landry, C. (2012). *The creative city: A toolkit for urban innovators*. Routledge.

UNESCO, 1984. *Teaching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Peace and Human Rights*. Paris: UNESCO.

UNESCO, 2006. *UNESCO Guidelines on Intercultural Education*. Paris: UNESCO. UNESCO, 2008. *UNESCO'S Work on Education for Peace and Non-Violence: Building Peace through Education*. Paris: UNESCO.

UNESCO, 2016. *Education 2030: Incheon Declaration and Framework for Ac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4*. Paris: UNESCO.

UNESCO, 2017. *The ABCs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Paris: UNESCO.

<http://www.yes24.com/Product/Goods/36108506> (타자의 추방)

<https://www.coe.int/en/web/interculturalcities> (유럽평의회 상호문화도시)

<https://www.coe.int/en/web/interculturalcities/-/developing-intercultural-competence-through-education>(일본상호문화센터)

<https://www.coe.int/en/web/interculturalcities/hamamatsu>(하마마츠)

[http://kosis.kr/\(국가통계포털\)](http://kosis.kr/(국가통계포털))

[http://www.law.go.kr/\(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ofin.moi.go.kr/portal/main.do>(지방재정365)

<http://openfinance.seoul.go.kr/main.do?localGovCd=00>(서울재정포털)

<http://www.publicdiplomacy.go.kr/introduce/public.jsp>(공공외교)

https://m.sedaily.com/NewsVlew/1VGG3GP1PT#_enliple

<http://stat.seoul.go.kr/jsp3/>(서울통계)

https://www.youtube.com/watch?v=vr10BU_a2C0

<https://en.unesco.org/interculturaldialogue/>(유네스코 상호문화대화)

<https://tongblog.sdm.go.kr/1735> (서대문구 유희공간)

file:///Users/parksasha/Downloads/dstrct_NW.pdf(2030 서울생활권계획)

<https://www.coe.int/en/web/interculturalcities/what>(상호문화도시)

부록1: 옹기종기 상생마을 가이드북

III 상호문화서울

옹기종기상생마을 가이드북

<all different all equal 모두 다르지만 모두 평등하다>



<옹기종기상생마을 프로그램 구성>

1. 나를 알아가는 시간

타인에게 만큼이나 많은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것이 상호문화의 시작입니다. <유럽의 상호문화교육 by 마르틴 알달라-프렛세이>

옹기종기 상생마을은 다양성이 창조성으로 변화되는 공간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성찰에서 시작하여 그 공간에 함께하는 이들에 대한 호기심으로 옮겨가면서, 어떻게 다름이 풍요가 되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실험해볼 수 있습니다. 그 첫 순서인 나를 알아가는 시간에서는 바쁜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예술의 도구들을 통해서 던져보며 자신의 감정을 깨우고 알아차리는 시간으로 만들어 봅니다.

1

나를 알아가는 시간

1. 나의 이야기 2. 붓으로 그리는 나 3. 내 마음을 읽어줘의 코너로 이루어진 자기 자신에 대한 탐구의 시간

2

너를 알아가는 시간

타인에 대한 호기심을 확장해볼 수 있는 시간으로 첫인상 게임과 함께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보는 시간

3

너와 내가 만나 춤이되는 시간

누구나 있는 몸을 통해서 함께 춤과 움직임으로 만남을 확장해보는 시간



1. 나의 이야기
그림책에서 가장 와 닿는 문구를 골라보면서 오늘의 감정에 대해서 느껴보는 시간



2. 붓으로 그리는 나
자기 자신이 고른 문구를 캘리그래피를 통해서 표현해 보면서 마음 정화의 시간



3. 내 마음을 읽어줘
인문학 고전에서 길어올린 다양한 지혜의 문구들을 랜덤으로 뽑아보면서 스스로의 마음을 경청하는 시간

비 상호문화서술

2. 너를 알아가는 시간

공통점 찾기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해보는 시간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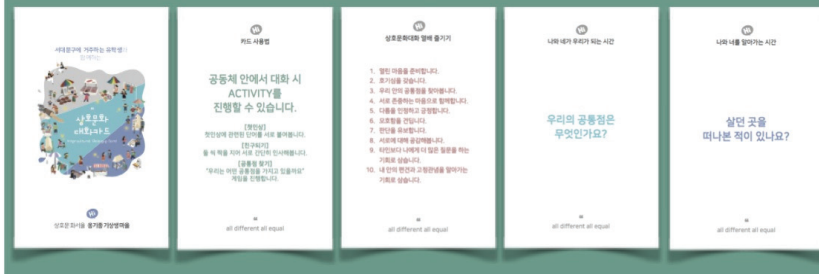
첫인상 이미지가 담겨져 있는 스티커를 한 세트씩 나누어 가지고 (총16개의 이미지가 담겨져 있으나 각자가 원하는 첫인상을 적을 수 있음) 서로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참여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과 인사를 나눈다. 인사 후 자신이 느껴지는 상대방의 이미지 스티커를 선물로 붙여준다. 자칫 판단이나 분별이라는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선물'로서 준다는 것을 사회자가 안내해줄 필요가 있다. 이것을 처음에 하는 이유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모습과 상대가 바라보는 모습의 차이에서 오는 지점들을 자연스럽게 확인하고 나누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각자는 자기 안의 고정관념과 편견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확인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볼 수 있다. 이 게임 역시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응용이 될 수 있다. 더 많은 첫인상의 단어들을 조합해서 카드를 나누어주어도 좋고, 스스로에 대해서 그리고 상대방에게 비춰지는 간극에 대해서 나누어 보아도 흥미로운 시간이 될 수 있다.

시간을 잘 지키는 (punctual/守時的)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good listener 傾聴)	창조적인 (creative/創造的)	존중하는 (respect/尊重)
친절한 (kind/亲切的)	열린마음일 것 같다 (open-minded 開放的心)	친구가 많은 (many friends 多朋友)	호기심있는 (curiosity/好奇心)
여행을 좋아하는 (traveller/旅行者)	매매모호함을 잘 건디는 (withhold the vagueness)	지혜로운 (wise/賢者)	사랑이 많은 (loving/慈)
감수성이 풍부한 (sensitive 感受性)	예술적인 (artistic/艺术的)	공정한 (fair/公正的)	관대한 (generous/寛容的)



<상호문화대화 카드 활용법>

서로 다름이 풍요가 되는 관계를 위해 개발된 상호문화대화 카드에는 총 35개의 질문이 담겨있다. 타인에게보다 더 많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도록 성찰의 길잡이가 되는 질문들부터 타인에 대한 호기심을 확장하며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질문들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구성하였다. 물론 어떠한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어도 무리가 없다. 또한, 상호문화대화 열매 즐기기 Tips이 들어 있어서, 처음 보는 사람들도 어디에 중점을 두고 대화를 나누어야 하는지 알기 쉽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 1)열린 마음을 준비합니다. 2)호기심을 갖습니다. 3)우리 안의 공통점을 찾아봅니다. 4)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5)다름을 인정하고 긍정합니다. 6)모호함을 견뎌냅니다. 7)판단을 유보합니다. 8)서로에 대해 공감해봅니다. 9)타인보다 나에게 더 많은 질문을 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10)내 안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알아가는 기회로 삼습니다.



III 상호문화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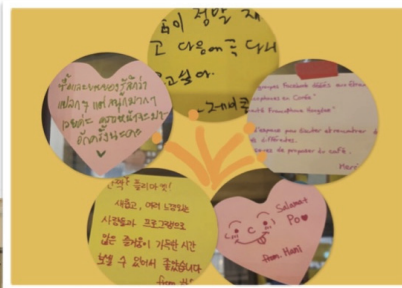
3. 너와 내가 만나 춤이되는 시간

서로 다름이 만나 새로운 제3의 길을 만들어 가는 시간으로 언어 너머의 몸짓으로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을 한다.

몸은 또 하나의 소통의 길이다.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몸이 존재한다. 만남이란 언어 뿐만 아니라 몸을 통해서 더 직접적으로 가능해진다. 서로의 온기를 느끼면서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르지만, 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상호연결감을 높이기 위한 좋은 활동으로 너와 내가 연결되어 춤이 되고 시가되는 마지막 단계를 만들 수 있으면 좋다.



“Good will is not enough, Action is needed.” (UNESCO Education PACK)



부록2: 상호문화대화의 예시 (중국 유학생 네사 Case)



EE(Interviewee): 저는 중국 북경에서 온 네사라고 합니다. 영어 이름은 바네스라고 하고, 한국분들은 보통 네사라고 불러요. 저는 중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2년간 일했습니다. 네 작년에 퇴사하고, 연대에서 마케팅 학과 대학원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프로이방인 입장으로 초대받은 것 같아요.

ER(Interviewer):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첫 무대를 열어주신, 네사. 저기 혹시 모여있는 질문이 있나요? 그리고 여기 모여주신 분들이 있는데 오셔서 궁금한 것이 있다고 적어주셨는데, 미처 못적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듣다가 이런 게 궁금하다 하시면 손들고 질문해주세요. 마침 프로이방인이라고 각인이 되었는데 아주 와닿거든요. 일단 이 질문이 들어

왔으니까 여쭙볼게요. **한국생활을 하면서 의지하게 된 사람이 있다면? 얼마 되지는 않았다고 하셨지만 그 와중에 한국을 떠난 후에도 그 사람을 보기 위해 이곳에 돌아올 마음이 있나요?**

EE: 저는 대학원 1학기예요, 한국에 온 지 두 달밖에 안되었어요. 그러다보니 아무래도 만나는 사람들이 저의 사랑하는 동기들, 2년 동안 같이 할 테니까요.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 연락할 것 같아요.

ER: 동기들이 다 한국인인가요?

EE: 대부분이 한국 사람들이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있어요.

ER: 또 하나 들어온 거 여쭙볼게요. 어려운 질문인데 자기를 알아가고 타인을 알아가고 서로를 알아가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적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큰 이슈이기는 한데, **많은 새로운 나라들,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그렇게 했을 때 뭔가 나를 알아가는 또는 타인에 대해서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에피소드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EE: 저는 둘 다 중요하지만, **타인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자기를 알아봐야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게 된다면, 저는 미국에서 communication을 좀 배웠거든요. 마이너로, 거기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친하게 지내고 싶으면 self disclosure가 제일 중요하다는 연구가 있었어요. self disclosure를 하려면 엄청 자기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그러면 자기 얘기하면서, 상대방 이야기를 듣고 서로 주고받고 하며 대화 이어지며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ER: 혹시 질문이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마침 네사에게(한국에서는 2개월 밖에 있지 않았지만) 궁금한게 있으신 분이 있나요?

질문자1: 자신을 먼저 알아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청소년이나 한국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을 보신다면 어떻게 방법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EE: 저는 다양한 친구,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추천해요. 먼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말을 뱉을 수 있잖아요. 대화하며 정리하는 과정이 자신에 대해 알게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항상 대화가 기적을 만든다. 대화, communication의 힘을 믿고 있어서,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ER: 와~ 대화가 기적을 만든다. 오늘 기적의 시간을 함께 하는 것 같은데, 언어가 문제, 걸림돌이 된 적은 없나요? 지금 굉장히 한국말을 2개월밖에 안되었는데 너무 잘 하시고, 너무 놀라서 여쭙봤는데 이미 고등학교때부터 하셨대요. 그런데 혹시 다른 나라에서 언어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은 없나요?

EE: 당연히 있... 근데 문제가 될 정도로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왜냐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바탕에서...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 이해하려고 노력하려는 상대가 있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 같아요.

ER: Communication 전공자다운 정석을 말씀해주셨는데 (EE: 전공 아니에요. 마이너 마이너) 존중 항상 중요하다고 배우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덕목인데 감사합니다.

ER: 또 질문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한국 생활을 하면서, 아직 2개월 되었지만 좋았던 점, 힘들었던 점이 그 사이에도 혹시 있나요? 혹은 한국인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나요? 다른 나라에 계시면서도 느꼈던 것, 아쉬웠던 게 있었다면 그것을 얘기해주셔도 좋고요.

EE: 저는 솔직히 한국분들이 저보다 눈치를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 동기주에 이미 지도교수님을 찾은 친구 있는데, 그 친구와 같이 학식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마침 그분의 지도교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사할까 말까 20분 동안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웃음) (ER: 그래서 결국 인사했나요?) 아니요. 만약에 미국에서 이런 경우가 있다면 Hi 그냥 인사할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런 고민까지, 저는 솔직히 아직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동기 중에 어떤 친구가 며칠 전에 헤어졌어요. 저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듣자마자 “왜 헤어졌어?” 바로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동기 다른 사람들은 저희 아무도 안 물어봤다고 해서 그래서 물어보면 안 되는 질문인가? 친구라면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 아닌가요? 약간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많아...

ER: 그렇군요. 아마도 이런 부분은 문화적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그럼 또

혹시 네사에게 질문, 궁금한 게 있나요? 이런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어 이거 좀 궁금한데, 질문해보고 싶은데 하는.

질문자2: 한국에 와서 지금 두 달되었는데 필요한 물건들은 집구하고, 뭐 물건들, 필요한 것들은 어떻게 구했는지?

EE: 정보 아니면 (ER: 이런 정보들, 예를 들면 집을 당장 구해야 하는데 한국을 처음이니가 어디로, 사이트로 보는지 친구를 통해서 하는지.) 거의 사이트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중국인 유학생이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 포럼 커뮤니티 같은 사이트에서 정보 많이 찾아보고, 근데 그런 정보들이 다, 이 사람이 하는 말, 다른 사람이 하는 말 일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이 찾아봐야 되는데,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질문자4: 저는 프로이방인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시작하게 된 계기, 그리고 지금은 프로이방인으로서 어떠신지?

EE: 저는 어머니의 영향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약간 그런 꿈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국 많이 돌아다니고 유학하는 꿈 좀 있었고, 그래서 어렸을때부터 저한테는 자유가 제일 중요한 것이라 강조하셨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어렸을때부터 저는 학부전공에서부터 호텔경영이었어요. 근데 호텔경영같은 경우가 bachelor study 좀 더 전문적인 공부를 하고 싶으면 무조건 유학을 해야한다는 그런 게 좀 있었고, 그래서 미국에 가게 되었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싱가포르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저는 약간 이방인이라고 하지만 딱히 불편, 진짜 이방인이라고 challenge같은 게 많이 있었나... 있었어도 약간 지금은 기억이 안나는 그 정도인거 같아요. 새로운 환경, 경험 즐기는 스타일이라서, 그리고 또 엄마가 아직까지도 만일 나중에 박사를 한다면 또 다른 나라에서 하라, 나중에 어느 나라에서 살아도 괜찮다고 말씀하셔서, 하고 싶은 거 다하라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ER: 문득 얘기 듣다보니까 성격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또 부모님의 영향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형제도 있으세요? (EE: 아니요) 혼자인데도 또 이렇게 용기있게 대단합니다. (EE: 저희 또래는 다 외동) 그렇죠. 중국에서는 외동 많겠어요.

질문자5: 지금 어떻게 보면, 영어, 중국어, 한국어 이렇게 세 개 국어를 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대화하는 도중에 갑자기 영어를 말하거나, 중국어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까요?

EE: 저 혹시 이렇게 말하면 안믿어지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국말 할 때 한국어로 생각해요. 영어할때는 영어로 (ER: 클래스가 다르니까 (웃음)) 해서 한국어로 얘기할 때 영어 떠오르지 않아요. 한국어로 생각하니까. 근데 가끔 모르는 단어 있기는 있는데 그런 경우 있으면 한국어로 설명하고자 노력을 많이 해요. 아니면 검색해서, 검색해서 한국어로 얘기해요.

부록3: 서대문구 유학생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한 설문지 내용

설문링크: <https://forms.gle/pQBthMYw4XHtgGQW7>

**Hi! 상호문화도시
서울!**

서대문구 유학생들과
함께 만드는 상생마을
옹기종기 프로젝트

“단짝마켓”

일시: 2019년 8월 31일 토요일 오전 11시
장소: 카페 공캠 (서울 마포구 잔다리로 111 지하1층)
대상: 단짝 친구를 만들고 싶은 누구나!

thời gian : Thứ Bảy, 11h sáng,
ngày 31 tháng 8 năm 2019.
Địa điểm: CAFE GONGCAM
(Seoul, Mapo-gu, Đường
Jandari 111 tầng hầm B1)
Mục tiêu: dành cho tất cả
những ai muốn kết bạn bốn
phương!

日期: 2019年8月31日 星期六 上午 11点
地址: 咖啡馆 Gong Cam (首尔 麻浦区
잔다리로 111 地下1楼)
对象: 想交朋友的任何人!

In order for the project to flow
smoothly, please complete the
attached questionnaire. Thank you!
Audience: anyone interested in
making new friends!

1. 한국에서의 긍정적 경험(행복했던 경험)을 알려주세요.
있다면 구체적인 상황 및 이유를 이야기해주세요.
1. Hãy cho chúng tôi biết về những trải nghiệm mang tính
tích cực (thú vị và hữu ích) của bạn ở Hàn Quốc. Nếu có,
xin vui lòng cho chúng tôi biết nội dung cụ thể về trải
nghiệm đó của bạn.
1. 在韩国, 如果您有幸福的经验, 具体情况及理由是什么?
1. Please share any positive experience. If so, could you
please give us more specific circumstances and reasons?

2. 한국에서의 부정적 경험(힘들었던 경험)을 알려주세요. 있다면 구체적인 상황 및 이유를 이야기해주세요.

2. Hãy cho chúng tôi biết về trải nghiệm có tính tiêu cực (trải nghiệm khiến bạn khó chịu hoặc ấn tượng không tốt) của bạn ở Hàn Quốc. Nếu có, xin vui lòng cho chúng tôi biết nội dung cụ thể.

2. 在韩国, 如果您有的困难经验, 具体情况及理由是什么?

2. Please share any negative experience. If so, could you please give us more specific circumstances and reasons?

-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들이 더불어 잘 살아가는 한국을 위해 바라는 점과 이유를 이야기 해주세요.
- Để góp phần cho việc sống tốt hơn ở Hàn Quốc giữa các nền văn hóa khác nhau. Xin vui lòng cho chúng tôi biết những gì bạn mong muốn và tại sao bạn mong muốn điều đó ở Hàn Quốc.
- 我们的社会是和不同文化背景的人一起共生的地方, 您对这样的韩国所希望的是什么? 理由又是什么?
- What changes would you like to see in Korea? In order to envision a more multicultural and friendly Korea, please share and explain.

- 플리마켓에서 물건을 판매하거나 사고 싶나요? 플리마켓에서 판매하거나 사고 싶은 물건이 있다면 물건의 종류를 말씀해주세요.
- 예) 각 나라 음식, 생활용품, 가전제품 등
- 您是否有想买卖的东西在跳蚤市场?如果有, 请填写东西的种类。(例如: 各国饮食, 生活用品, 电子产品等)
- Bạn có muốn bán hàng hoặc mua hàng tại Flea market?
- Nếu bạn muốn trải nghiệm bán hàng hoặc muốn mua mặt hàng nào đó tại Flea market bạn có thể cho chúng tôi biết mặt hàng mà bạn cần là gì. Ví dụ: ẩm thực của mỗi quốc gia; đồ dùng sinh hoạt; đồ dùng gia dụng;...
- Do you want to sell or buy goods at flea Market? Please tell us what type of item you want to buy or sell at flea Market.

부록4: 서대문구 유학생 대상으로 한 설문지 코딩(온오프라인 설문 통합버전)

	이름	연령	국적	한국 거주기간	현 거주지	한국에서의 긍정적 경험	한국에서의 부정적 경험	한국에 바라는 점	플리마켓 활용용도
1	하스미	22	아르메니아	1년이상	서울	친근함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차들이 멈춰주지 않는 것	외국인 일자리 창출	아르메니아 음식 판매
2	Aololat Nurulloery	26	우즈베키스탄	1년이상	서울 신촌	친근하고 따뜻한 마음	빨리빨리 문화가 따라가기 힘들다	인종주의와 차별에 대한 개선	겨울 의류를 구매하고 싶다. 물은 비싸다.
3	PATRICIA AQUADO QAMERO	25	스페인	1년이상	이대 기숙사	한국 고등학생들과 함께하는 활동에서 서로 언어적 도움을 받은 것	식당 메뉴편이 모두 한국어로만 되어 있어 당황했던 것	외국인에 대한 낙인을 줄여 주고 서로 좀더 따뜻하게 대해 주었으면 한다.	일상 생활 용품
4	***	21	중국	2년이상	서울				
5	조충	25	중국 하남성	2년	서대문구	외모를 중시하는 한국에 사는 게 좋다.	한국어 잘 못해서 생활이 좀 힘들다.	무	중고소파
6	Marisa Davis	31	스위스	4년	서울	한국인 친절. 외국인을 위한 무료 축제와 문화활동, 박물관과 고궁의 한 입장료. 한국은 여성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 도둑이나 강도가 거의 존재하지 않음.	한국인은 참을성이 없다. 외국인의 느린 한국어를 기다리지 않고 말을 잘라 버린다. 나이 든 어른들이 지하철에서 먼저 가려고 밀친다. 한국은 강한 계층(계급)과 무력감이 문제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자신보다 낮은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타협안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행정일에 있어 영어로 더 많은 서비스가 제공되길 바란다(채류, 보험, 전화 계약, 공공요금 등).	친환경 플리마켓에 가서 실망한 적이 있음. 옷을 팔고 싶다
7	Kristine Faye Mondares	25	필리핀	2년	서울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은 편리하고 안전하고, 온라인으로 언제든지 음식을 주문할 수 있고, 무료함을 달랠 수 있는 것들이 실현 가능한 곳이다.	한국이 현대화(글로벌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골적인 백인 선호가 여전하다.	한국의 일터와 학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노골적인 인종 프로파간다 일령이 없었으면 한다.	음식과 한국 수공예품을 구입하고 싶다

8	Lava Lachavssse	19	프랑스	2달	이대 기숙사	활동적이고 좋은 사람들을 만남	의사소통할 때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경우를 빼고는 부정적인 경험 거의 없다.	더 변화가 필요하지 않다	옷과 기념품
9	Ines Chemlal	20	프랑스	2달	이대 기숙사	모두가 멋지고 도우려는 사람들이며, 문화적 발전은 대단하고 대학은 너무 멋지고 많이 배우고 있다.	때때로 한국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들고 언어적 장벽은 극복해야만 하는 것이었다.	영어를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옷이나 작은 물품들
10	***	20	홍콩	1년	서울	추석때 집주인이 송편을 직접 만들어 가져다 주었다.	때때로 외국인을 보고 어색해 하거나 피하는 경우	나인 든 어른들이 좀 더 글로벌적인 생각을 가지길 바람.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없었으면 좋겠다.	
11	GABRIEL CORRADINI	20	영국계-이탈리안	1년	연세대 기숙사	잘 발달된 대중교통과 좋은 음식	무	외국 음식이나 물건의 수량과 가격 측면에서 접근이 용이했으면 좋겠다	선호하지 않음
12	***	24	독일			친근하고 도와주려고 함. K-pop과 그룹 퍼포먼스를 아주 좋아함.		좀 더 환경친화적이고 더 열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13	***	23	프랑스	10개월	이대 기숙사	한국 사람들이 친근하고 환영해 준다. 한강에서 치킨을 먹은 것	아직 없음	한국을 잘 모를 때는 한국 사회에 통합되기 어렵다.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각국에서 가져온 물건과 한국적인 물건
14	Jan Kobstadt	21	독일	5개월	서울	친절하고 도와려고 함	대중교통이 너무 일찍 끝진다.	영어를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테트로 품의 의류
15	Anica Adam	24	독일	6개월	서울	깨끗하다. 공손하다(택시 운전사 제외). 젊은이들은 의사소통하려고 노력함.	언어의 장벽, 이방인의 느낌, 한국인들이 외국인에 대해 어려워 한다	더욱 열린 의사소통이 필요하다(외국인을 허용하는 모임 등)	의류를 사고 싶다
16	YANNIK EICHNER	22	독일	6개월	서울	교통수단과 언어를 배우는 것. 식당에서 음식주문할 때 모든 사람들의 도움. 또 영어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것		긍정적인 경험만 있다.	팔 물건이 없다.

17	LISA REBELLA JAMES	18	미국	4년	서울	한국인들이 다정하다. 학교 캠퍼스가 정말 멋지다.	무	영어를 좀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18	Pinky Wong	36	홍콩	3년6개월	마포구 연남동	많은 정원과 장소들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은행과 관공서에서 비자 문제로 어려웠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외국인들의 입장을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다.	각국 음식, 수공예품
19	문정	32	중국	1년	서울				음식과 가전제품
20	Vanessa Liang	25	중국	2개월	서울	음식, 장보러 시장가는 것. 맛있는 평양 냉면집 찾아다니는 것	방구하기, 입학 등록증 등 관련 노하우들을 얻는 방법이 어려웠다.	국적을 떠나 다른 정체성에도 관심을 갖고, 성소수자와 장애인에 관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21	***	29	중국	1년	서울	도움을 받은 것	언어가 통하지 않는 것		생활용품, 전자제품
22	Julie	24	미국	2개월	서울 신촌	대중교통이 좋고, 살기에 안전한 곳이다.			관심없다
23	Juliette	25	프랑스	9개월	서울	한국어 수업과 새로운 친구를 만난 것	백인에게 관대하고 인종차별적 행위	더 문화적인 축제와 젊은 외국인들과 한국인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가족을 위한 기념품
24	Colleen	20	미국	4개월	이대 기숙사	식당에서 외국인들에게 친절한 한국 사람들	병원과 응급실 안내도가 어렵고 언어 장벽의 어려움		필요없다
25	***	32	가나	6년	서울	무료로 여행자를 방문할 수 있고, 값싸고 편리한 대중교통, 좋은 치안	인종차별과 구직활동의 어려움. 한국어의 어려움	외국인에게 개방적이고 관용이 필요하다. 외국인이 참여 가능한 활동의 확보. 출신국과 피부색, 인종에 따른 차별하지 말기	의류, 가정집기
26	Karolina Salminen	23	핀란드	10개월	서울	친절하고 잘 도와주는 현지인, 캠퍼스 내의 스터들의 도움. 한국학생들이 기꺼이 도와주려는 것	한국인들이 영어로 말 걸게 부담이 되고, 가게에서 서비스를 잘 못 받음		

27	Semler Annika	21	독일	4개월	이대 기숙사	내가 요청하지 않아도 친절하고 잘 도와주는 현지인	한국어를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정하지 않다	영어로 된 정보와 안내판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작은 가전 집기류를 사고 싶고, 내게 필요 없는 물건 팔기
28	HEI TIAN YUAN	23	중국	2개월	서울	한국은 활력이 넘치는 나라다. 한국적 머리모양과 의류, 음악에 대해 관심 많다. 평소 옷이랑 화장품 쇼핑하는 것이 나에게 행복한 일이다.	한국인들이 말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	한국이 항상 지금처럼 활기 넘치기를... 주변 외국인들이 한국을 좋아한다.	연예인 관련 상품, 서적
29	Sarah Mahvttin	21	인도네시아	2년	서울	한국의 대중교통 시설이 최고다	물가가 비싸다	차별하지 않기를.	
30	***	22	중국	2년 반	경기 구리시	좋은 룸메이트 만난 것	한국친구 사귀기	다들 잘 받아주고 잘 통했으면 좋겠다.	음식
31	ben hassana fatma	27	tunisia	seoul	2 years	met a group of people in language school.. they take us places after each class	culture shock from the food... you expect a taste and taste something different.. like sweet when it should be salty	more foreign... like offering more english especially when needed... stop discriminating against foreigners like for credit card issuance or having paypal etc	no
32	교민	21	대만	Chang hun	2016년 9월부터	교통은 편리하다	경쟁력이 심하다	한국에서 가끔씩 배타주의를 느낄 수 있다. 외국인한테 좀 더 따뜻하고 친절하게 해주시면 한국에서 사는 외국사람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것 같다.	오븐

33	Ngan (용안)	27	Vietnam	성남시	5개월	처음으로 한강에 가고 벚꽃을 구경했던 날. 아름답고 평화로운 풍경이 힐링이 된다는 느낌이 들어서입니다	창문없고 조그맣고 답답한 고시원에서 지내는 거? 처음에 너무 충격을 받고 이제 아직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저번의 건강보험 제도처럼 정부에서 외국인을 더 힘들게 하는 정책을 그만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1. 네 2. 책 하 고 우 리 나 라 음 식 물, 조 미 료 등
34	Lin fa tseng	27	台灣	韓國	無限	在韓國遇到好的朋友然後跟他們一起開業的時候是我覺得最讓我高興幸福的時候	這樣我沒有家庭所以我想真的是比較困難的時候	我想是沒有問題	我想買賣是我在韓國跟朋友一起開業的本質作品
35	Engeng	22	태국에 태어나 현재 태국과 한국(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음)	경기도 하남시	10년째	교통수단이 좋아서 혼자 어디가도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것	주고 받는 농담이 어렵다	나라, 문화가 다를 것을 인정하면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함	각 나라 음식 체험하는 것이 하나의 List라서 음식을 많이 체험해보고 싶다
36	소명	29		서울	2015-2019	좋은 학교에서 니는 것	일을 찾은 것	문화를 존하는 것	동물
37	장효청	37	중국	서울	13년	교통은 편해요.	한국사람의 지나친 관심	차이에 대한 인정	잘 모르겠다

38	디디	22	중국	서울	3	화장실에 휴지가 있어서 너무 편해요.	주소 변경할 때 14일 안에 신고해야 하는데 짐을 못 구하는 경우	평등. 서양 사람은 아시아 사람보다 많은 대우가 좋다	있다. 생활용품
39	manito	24	중국	베이징	2년	없음	없음	없음	없음
40	Frith	24	중국	서울	4년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언어를 못했고 주변 친구가 시간을 내서 열심히 지도 해주기도 한국어로 연습을 했기도 하기 때문에 언어 실력이 금방 늘어났어요. 지금 회상해보면서도 마음이 따뜻하고 행복하다고 여겨요.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여러 습관에 잘 맞지 못했었어요. 그거 때문에 싸우기도 했고 갈등도 일어나기도 했어요. 그거들을 지금 회상해보게 되면 정말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에요.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서 문화 융합 대신에 공존하면서 서로 이해가 많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현책, 음악 테이프

작은연구 좋은서울 19-01

Hi 상호문화도시 서울: 서대문구 유학생들과
함께 만드는 옹기종기 상생마을 프로젝트

발행인 서왕진

발행일 2019년 11월 24일

발행처 서울연구원

비매품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이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